

報學波逸

第九號



刊學校術技高等記速韓大

遼波學報

9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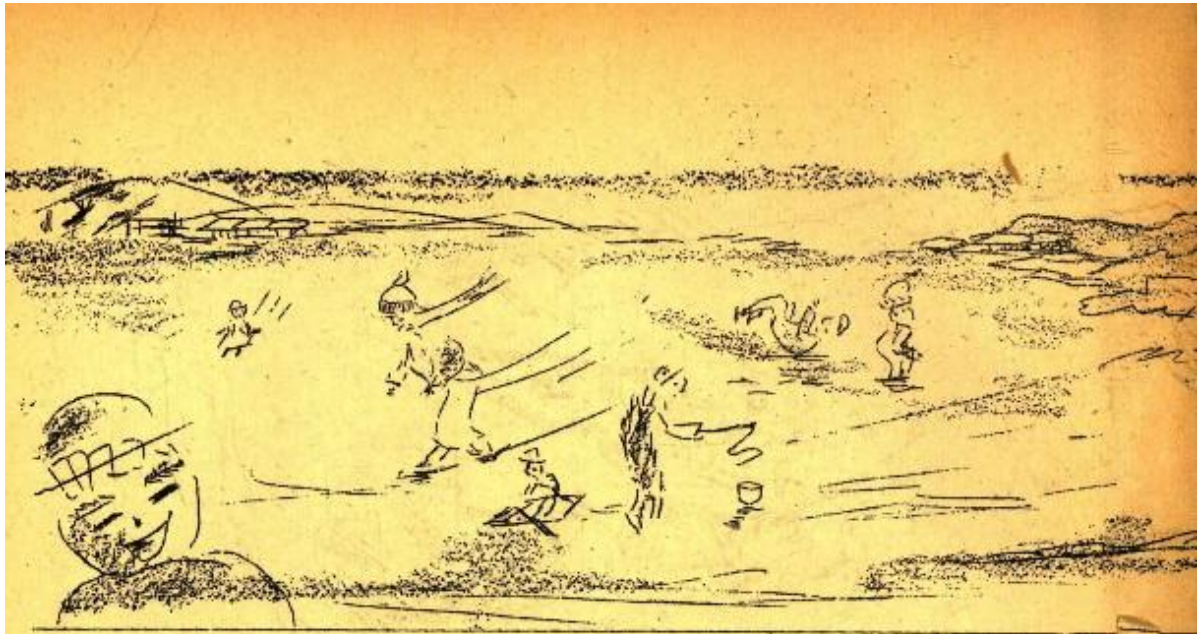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刊



目 次

(卷頭言)	副校長 徐商俊		
結實을 앞두고	校 監 金震熙	3	
(提言) 逸波學報에 寄함	金今勇	7	
(提言) 알려주고 싶은 것	孫弘基	11	
(論壇) 現實과 當面課題	I M K	16	
△白日場▽ 한글과 우리의生活	陸鍾朱	22	
(隨筆) 職場 體驗談	金容煥	25	
三 十 分	金明壽	32	
(詩) 激戰地의 가을		36	
병아리 速記士	金泰宜	36	
師宅 探訪記	石頭HY生	40	
(隨想) 獨守空房	崔龍夏	57	





編輯後記

86

金言

編輯室

89

新語、新知識

編輯室

83

設問

金容煥

80

紀行文

僧伽寺

朴保和

74

(吾三)

그림의 時

朴益鉉

70

☆便紙☆ 삼개 부치느 詩

68

(詩)

祖國

申丙均

67

秋夜斷想

黃善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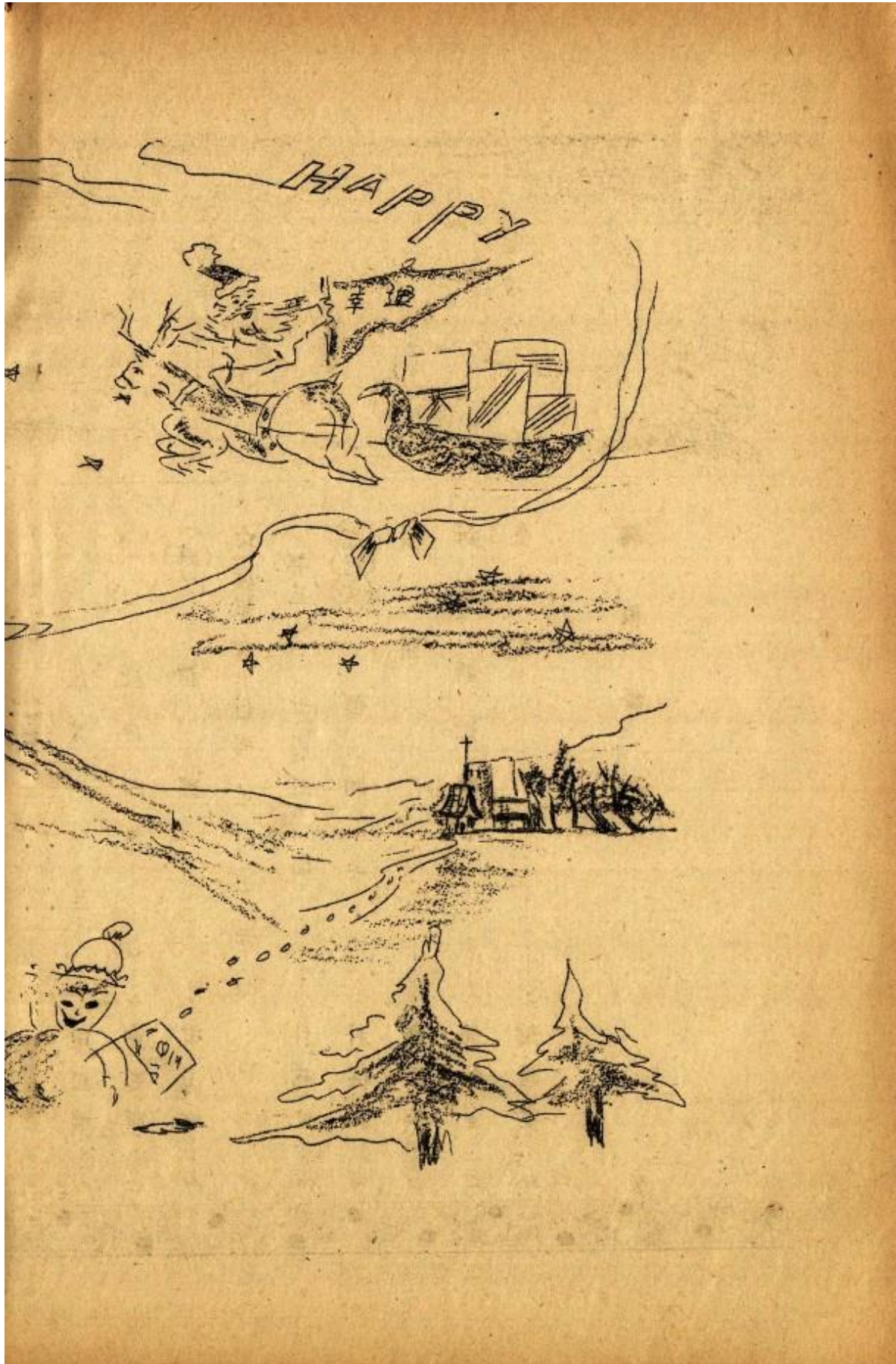
65

落葉卅人生

申振植

61





卷頭言

副校長 徐商俊

知性人은 살아있고 知的 門은 온세계를 향해서 널리 열려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冊子로서 逸波가 나올때 거기에 나타나있는 그知 이것도 文

化의 一部分이라고 보겠습니다

文化란 하루아침에 이룩되는것이 아니고 오랜 傳統과 努力을 쌓아올려서 文

化라는 두글자가 나오게되는것입니다

速記의 문을 두드리며 一便으로 이같이 우리 速記界의 屢々히 燕과 誠意를

나타내고 있으니 一發前進의 態度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人間은 어데까지나 배워야하며 思索할줄 아려야하는것입니다

人間으로 태어나서 進歩가 없다는것은 停息이나 退步를 意味하는것이니 道徳面

에 있어서 行動面에 있어서 思索面에 있어서 또 다른 部面에 있어서나 進歩

된 길을 걸어가야 할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精神的으로 새롭게 思索하고 研究하고 行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 逸波學報 九호가 發刊됨에 自身の 滿足이란 무어라 말할것인가 다만 諸君들
의 努力의 結晶이니 每事가 다 그렇겠지만 特別히 文藝誌라는 것은 차근 차근
히 規模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新新한 理論과 實踐이 있어야 된
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의 學芸誌로서 새로운 文化價値를 가진 敘述과 編輯으로 되
여야 할 것입니다 前番의 週報보다 더 훨씬 새롭고 進歩된 內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적은 돈으로 적은 部數로 가난과 싸우는 것을 哀惜히 생각하
며 앞으로의 發展과 祝靄하기를 雙手로서 祝願하는 바입니다

結實을 앞두고



校監 金 爰 熙

俗談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原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結果가 發生하는 법이라는 뜻으로 理解할 수 있습니다. 콩과 팥을 심어 놓고 原種보다도 더욱 좋은 質의 콩과 팥이 生産되기를 期하려면, 여러가지 條件과 이에 알맞는 原因行爲가 있어야 함은 贅言을 不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本校에 入校한지도 於焉 八個月이관 日時가 흘렀고 나머지 三個余月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姓啣위에는 "速記士" 라는 冠訶가 붙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이 入學當時도 말하면 速記의 分野는 아직 未知의 領域에 屬한 學術임으로 이의 習得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細細한 注意와 激勵의 말씀을 繼續的으로 하여 온 것입니다 이 注意와 激勵을 要約하면 지금 우리敎室에 붙어있는 標語인 "忍耐와 努力" 이라는 두 單語로서 骨子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入校한 學友들에게는 이 두 單語의 忠實치 못한 本은
落伍生이라는 戒탈을 달고 本校를 등지게 되었고 오직 이 두 單語의 精神을
正直하게 實踐하여온 여러분만이 지금 結實을 앞에 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繼起的으로 닥아오는 어려운 고비를 잘 克服할수있는 忍耐性을 가졌기 때문
에 여러분은 오늘까지 學業을 繼續할수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서 여러분은 意
識, 無意識間에 本校授業을 通하여 人生修業에 있어서의 가장 根幹이 되는 忍
耐의 德을 全할수 있는 機會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速記學術의 習得은 忍耐만 가지고서는 充足할수가 없습니다 本校의
修業期間은 一年밖에 안되는 極히 짧은 時日이지만 여러분 앞을 가르막고 있
는 障礙와 吾儕은 大小 枚擧할수없이 繼續的으로 掩襲하는 가운데서 消極的인
忍耐만 가지고는 奮發할수 없는 것이고 이를 克服하려면은 굳건한 意志力과
이를 打開할수 있는 努力이 더욱더 要請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登校할수 있는 것은 速記學術의 進度와 併行한 여러분의

努力的 德이였음을 알수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은 修業에 있어서의 忍耐와 努力的 生活을 겪어온 여러분의 얼굴모습에는 顯著한 變化가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入學當時의 얼굴 모습에 比해서 짧은 동안이었지만 越等하게 洗練된 모습을 發見할수 있는 것이 나느 즐겁고 満足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洗練된 여러분의 모습뒤에는 忍耐와 努力的 德이 潛在해 있기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心田이 開發되는 証左라고 하겠읍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時間에 우리의 汗일은 무척 많습니다 遠記學術의 完成을 爲한 努力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實地로 遠記術의 活用은 뒷받침하여 주는 廣範한 知識의 攝取를 爲하여 恒常 눈(目)과 귀(耳)에 채족을 加해 야 할 것입니다 世間에서 技術者의 가지는 細心하고 銳利한 性格을 評하여 往往히 「技術者根性」이라는 말을 합니다 確實히 技術人이 가지기 쉬운 非開放

의 성격의 一面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細心하나 豁然을 알수 있고
銳利하나 寬容을 理解할수 있는 生活이 必要합니다

이 生活을 여러분은 學生會를 通하여 求할수 있는 것입니다 自立精神과 協同精
神을 根幹으로 組織된 本校 學生會의 自治的運營에 依한 組織生活을 通하여
創意 建設 節制 自由의 生活은 本校의 傳統으로서 確立될뿐만 아니라 各자의
修養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有能한 速記人은 最上級の 啟養人이어야 한다」는 命題를 向하여
本校生活一年을 現在精學生 全員이 人生에 있어서의 보람있는 時期이었다고 矜
持를 가질수 있도록 明年 卒業時까지 一層의奮發을 바라는 바입니다



提言

『逸波學報에 寄함』

金 今 勇

過去の 追從的인 勉學時節과 달리 個人의 徹底한 自覺에 依해서 各者의 主
 體性을 살려가는 것이 現代學徒들의 態度이며 더우기 高等敎育을 마친 여러분
 은 이미 自身이 行할바, 뚜렷한 目標 밑에 生活을 營爲하는 터이고 旣히 여러
 先輩들이 마음의 滋養分이 될 훌륭한 敎訓과 忠告를 많이 하셨으니까 새삼스
 러히 같은 말을 되풀이 해보들 누구의 말처럼 그것이 設使 健忘症을 깨우치
 는 警告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良實深藏若虛 君子盛德容貌若愚라 老子같은
 분도 謙讓을 말삼하셨는데 하물며 口尙乳臭한 말은 오히려 理性이 最高度로
 發達한 요지음 學徒들에게는 넌센스밖에 될것이 없겠기에 躊躇하다가 初志를
 貫徹하려고 꾸준히 努力을 繼續하며 自身들의 發展을 爲해서 隘路를 무
 름쓰고 發表誌까지 내는 등의 活躍相과 日益刷新하는 모습을 示할때 人事를 다

하는者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確信 밑에서 몇마디의 祝福을 드리는

~8~
바이다

人生이란 意氣요 青年은 理想의 象徴이나 理想의 實現을 爲하여 온갖 精熱

을 바쳐 努力하는 그瞬間이 있음으로써 青年으로서의 價値는 左右하는 것이며

大小事에 努力함이 닦아온 成功도 없으리니와 참다운 努力이 있는 곳에 이루어

어지지 않는바도 없으리라 世界的인 努力家 「헤켄·켈러」女史까지 들추지 않드

라도 「不幸한 幸福者」 唐昇煥君이 우리 同胞에서 實證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山마루에선 한포기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보잘것 없는 始發의 理想 千古

而知新하는 態度와 百折不屈의 勇氣만 잃지 않는다면 풀잎에서 맺어진 물방울이

뭉이고 뭉여서 山꼭짜이를 흘러나리는 동안 바위에 떠바치고 모래속으로 흐르

지는 一部同僚들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개울이 되고 江물이 되어 바다로 들어

가듯이 여러분의 갈바는 定해지리라 믿는다

또한 여러분에게 賦與된 條件을 보드라도 法式自体는 次置하고 日淺하나마

確固히 내려오는 傳統을 가지고 整頓된 環境과 生氣있는 教材로서 尊尊한 여
러 井輩들의 注視속에 熱意에 넘친 여러 講師의 獻身的이며 計劃性있고 將來性있
는 指導를 받을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自身の 能力의 所致이겠으나 數
많은 靑年들이 이 瞬間에도 不遇한 處地에서 煩惱하고 있는때에 努力만 하면
앞날을 期約받을수 있는 充分한 條件과 環境을 具備한 여러분은 加一層 奮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

어느 學問이건 技術이건 一定한 水準에 이르기에는 그리 容易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速記에 있어서는 登高自鼻라 차근 차근히 順序대로 익히고 活用하는데
게을리 안는다면 結果 不可能이라 있을수 없다

다만 方法에 있어서 被動과 能動的의 差異가 成敗를 左右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修學旅行을 가던때의 行列을 想起해보라 앞줄에 선사람은 천천히 가도 中
間줄의 사람은 빨리 걸어야하고 뒷줄일수록 뛰다시피 해야 따라갈수 있는 것
은 무슨 까닭일까?

무슨 일이고 追從만 하는 被動이란 언젠나 勞力은 더들고 成果는 적은 것이
다

그러나 一旦 족을 힘을 다하여 앞에 섰을때 先驅者(單純한 意味의)의 快慰
과 더불어 成功의 길은 열려질 것이다

플으로 여러분의 團結로서 情誠어린 여러분의 文芸誌를 꾸며나가는 데에 아낌
없는 聲援을 보이며 좀더 凡俗적인 것을 떠나 學究적인 面을 裝飾하였으면
하는 希望을 披攤하고 逸波學報의 發展과 아울러 여러분의 技術이 向上되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



(筆者 國會速記士)

提言

알려주고 싶은 것

孫 弘 基

어느날 네살난 조카놈이 두살난 젖
뎨이를 얻겠다고 동을 대는 바람에

온집안 食口가 배탈을 켜고 웃은 일

이 있지만 아무리 生覺해도 先輩라는

짐을 지기는 스스로可笑롭고 버차는

데다가 後輩를 爲한 무엇인가를 써달

라는데는 苦役이 아닐수 없다

「타이를」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 고

했지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八

十老人이 還甲이된 아들에게 世事를

타일르는 「년센스」가 될 것이고 ...

할수없이 窮余之策으로 여기에 내가

昨年에 쓴 日記中에서 몇근데 拔萃해

볼까 生覺한다

○月 ○日

나는 期於코 屈服하고야 말았다 모진

世波는 나의 唯一한 生君의 「못도」인

自立의 信念을 余地없이 짓밟고 말았

다

열일곱 나던 해의 봄 어린 가슴에

못을 박듯 굳게 믿었다던 그 信念!

죽어도 남의 依頼를 받지 않겠다던

決心이 오늘 散散이 붓어지고 말았다

내 돈이 떨어지기 前에 職場을 求해

서 糊口之策을 세우고 밤에나 速記를

배우자면 것이 이체는 職場이 있더라

도 速記의 完成을 爲해서 抛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丈夫의 鉄石같은 決心이 꺾이는 瞬間

의 시름들과 屈辱感은 참으로 凄絶한

것이다

然而나 勝利를 爲해서라면 屈辱도 달

게 받지 않으면 안되겠지!

오늘도 아침 아홉시에 學校로 나가서

온 終日 종이의 鉛筆을 분들과 씨름

을 하다가 밤 아홉시頃에 집으로 도

라왔다

오늘부터 卒業后의 아무런 保障도 없

는 아니 卒業狀조차도 保証할수 없는

速記를 배우기 爲해서 나는 누이의

달갑지 않은 食客노릇을 할것을 生覺

하면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면 그럴수

록 그 보람을 爲하여 期於코 速記를

完成시켜야 할것이다

速記의 完成이 어려우면 어려움을수록

이것은 나의 一生의 試驗臺가 될 것

이다

하나를 完成 못하느라 어찌 열의 完成
을 期할수 있겠는가?

○月 ○日

反文에 들어가자 가면 잘수록 어려워
지지만 하고 자꾸 남에 뒤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失望만이 있을뿐이다 그
래도 内自身の 無能과 努力不足을 스

스로에 「캄푸라쥬」하기 爲해서 남에게
進度가 뒤 떨어지는 것을 애꿎은 素

質에 托어 시우려고 애쓰고 있는 自
己敗曠을 卒直히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書堂개 三年이면 功을 올린다」

는 것이어늘 하물며 人間으로서 設使

素質이 적으면 그에 反比例해서 그만큼

큰 努力을 더 하면 그것을 「카바」할

수 있지 않겠나? (下略)

○月 ○日

……(前略)……나는 三千圓짜리 送金

手票와 兄任의 精誠어린 敎勵의 편지

를 들고 하염없이 흐르는 (江)물을 씻

을 生覺도 아니하고 日記帳을 펴들었

다

내가 兄任에게 敎護의 손을 뻗친 것

은 生前 처음으로 일이다 (中略)……

비록 해는 짧다하나 짐심을 굶고 아
침부터 밤 여덟시까지 있자니 손이

뻗 뻗해지고 머리가 빙빙 돈다 오늘

도 反文時間에 先生任의 指通을 받고

절 절 매던 일 來日부터는 증이 한

장 鉛筆 한 자루 살 돈도 없거나와

「K君」에게서 빌린 돈을 來日은 꼭

갚아 주어야 한다는 焦燥를 안고 敎

室을 나오니 날씨는 차가워 몸이 으

시시 떨렸다

이처럼 凄絶한 때였기에 三千圓짜리

送金手帳가 千萬金보다 더 고마웠고

守守句句에 나의 成功을 빌어 주시고

敎勵해주시 兄任의 절망한 편지가 뼈
속에 사무쳤다

「地」에 계신 아버지도 너의 成功을

꼭 빌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 句

飾을 읽을 때 목을 놓아 울고 싶었다

그렇다 오늘이 이 感敎을 永遠히 腦

裡에 아로 삼여 努力하여 爭取하자.

人間은 過去라는 보금자리 위에서 자

라면서 過去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過去라는 「모텔」을 反省이라는 情

으로 다듬어 훌륭한 作品을 完成해

내는 것이 人生의 目的이 아닐까?...

이것은 日記를 拔萃하면서 문득 生覺

해 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如何間 언제적 부러이
지 사람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自己的 運去의 回想에 젖어보는 「센치
맨탈」한 習性을 배워 왔고 또 그것
을 즐겨한다

그러나 卒直히 나의 幼稚하고 拙劣한
思想의 痕跡과 生活의 断面을 公開하
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處해 있는 位
置가 倦怠期를 지난 懷疑期에 있음을

~15~
것으로 生覺할 때 후어나 도음이 될까
하는 老婆心에서 서머거리는데 이 글을

썼다

要件에 애기 남기前에 포대기 걱정
말고 빠졌한 아미를 남고 불 일이다
끝으로 한마디 速記에 失敗하는 者는
亦是 만테서 成功을 期하기 어려우리
라고 豫濼히 断定하고 싶다

(筆者 國會速記士)



現實과 當面課題

I M K

리 國土의 허리를 完全히 잘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現實과 같이 安定性없는 岐

大陸으로 連續되어 있는 이 國土 嶺 차게 버치진 이 韓半島 / 그 北쪽은

路에 있을 때는 丁史에 일찍히 그

赤色魔手들의 그 樣相은 質的으로 量

리한 繪例가 없었다 南北으로 面斷되

的으로 地理的인 優勢는 그냥 掩敵시

어 自由차 마수에 상풍점 우리는 實

질수는 없다 그 속에서는 暗騰한 저

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류와 無秩序한 混沌 이것을 그들은

동안 우리는 政治的인 野德과 侵略이

自由라 부르짖고 있다

비저낸 恐怖의 戰樣은 아직도 머리에

우리는 이不安定한 政治的인 社會的인

새삼스럽다 不自然한 政治協商과 願치

이 現實속에 直面하여 어떻게 行動을

얹는 軍事協定の 所産인 休戰線은 우

取할 것인가?

自由는 창세기以前의 영원으로 부터
아득한 未來에 까지 存在하여 있는
것이며 이 自由는 언제나 참된 비판
의 対象이 되기를 기원한다

어떤 未粒子가 한개의 個體로 부터
새로운 個體로 形成되기를 願하며 또

分難하여 努力하고 있다 곧 그 分리의
가 되는 것이 即 自由이다 外部에서

의 壓力은 늘 새로운 個體를 形成할
수 없게 공포히 內的으로 外的으로

妨礙하고 있다 이것이 自由 아닌 不自
由이다 이는 마치 精神病者가 自己意

識의 內部로 부터 받는 束縛과 何等

의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人間은 어디까지
나 自由로워야 하며 또 누구나 自由

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 自由는 그 自由自體가 우리

人類에게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X X

自由와 壓力 X 이 地球上에 있어서
自由와 억압은 不可避한 因果關係를

갖고 있다 그러나 自由는 어디까지
나 自由이나 억압은 流血 投獄 殺戮

等を 內含하고 있다 | 보라 | 저
철장막 속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自由

의 문화·속박의 쇠사슬을 벗어나려

自由를 쫓으며 쓰러지는 사람들을 그들

은 地下에서도 自由를 찾으리

우리는 以上과 같이 自由와 責任을

認識하기 때문에 自由를 守護하며 또

友邦 自由陣營과 같이 어깨를 겨룰수

있다

앞으로 우리 民族이 自由를 저버리지

않는限 友邦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

을 確信한다

그러나 우리가 束縛의 쇠사슬에 영친

저 北韓의 人民들의 自由를 찾아주며

우리의 自由를 영친토록 누릴려면 어

떻게 하여야 하는가. *done de say*

for yourself

그리고 착실하게 일 하여라 이 國土

이 民族의 統一은 타협만으로는 解結

할수 없다

여기에 앞장 설것은 復興이다 더욱이

工業發達は 當面課題이다 우리가 高度

의 工業力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찌

날에 비극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 民族은 대치의 性

格과 주변적 性格으로 또 而大陣營의

상충으로 國土가 兩斷되었다 거기에

수반하여 重工業의 시설은 以北으로

넘어 갔다

우리가 八二五以前에 우리 民族이 갖

이고 있는 工業施設을 그대로 발전

유성하였더라면 광복후 一 주년을 맞는

오늘과는 天地의 차가 있을 것이다

남북이 대치된 후 우리 南韓의 工業

狀態는 어떠한가 生産할수 있는 大部

分の 工業施設은 以北에 두었고 輕工

業의 명맥만을 유지할 따름이며 더욱

이 經濟的인 혼란은 그나마 기형적인

輕工業만도 完全히 붕괴해 버렸다 그

리나 漸進的으로 各分野가 復舊을 보

려 할때 지난번 動亂은 우리에게 自

由인 民族의 士를 養育하였으며

各分野에 걸쳐 破壞된 체 오늘에 이

르렀다 經濟力이 弱한 나라가 現代國

家系列에 설수 있을까?

그 나라 經濟力은 더욱 國家威信을

두터히 한다

주리고 차문 一 個人의 수치임과 같이

國家社會에서도 그 恥辱을 면치못한다

우리는 묵묵히 뜨거운 皮肉에 손

실줄 모르고 일하는 개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낙담하는 者 항상 기로에서 우리를

저주하여 준다

~19~

서늘한 그늘아래에서 노래만 부르든

벼짚이의 末路를 보라

여름은 이미 지났다 냉병한 가을 바

람은 그를 어떻게 처하여 주나!

또 自身은 어떻게 되나

무르익는 가을과 같이 붉어지는 단풍

요 결과는 어떤가!

自然은 例外가 없다 억임없이 닥아오

는 因果의 關係

셋째는 政治의 安定과 協助精神의 양

양이다 解放以後 雨後竹筍처럼 이어나

든 政黨들!

그야말로 政界는 政界대로 各團體는

團體대로 서로 중상 모략으로 집고

새든 날!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하며 根本精神

을 표쳐야 한다

이 때를 당하여 우리는 협조의 정신

이 必要되는 단계에 있다 이 협조

정신이야말로 機械를 完成시키는 데에

必要不可缺한 "물트"와 "놉트"와도 갖

다

이 정신이 결여된 人間은 폐허에 버

려진 나무 동강과 같다 강인 전면한

이나라 民族의 단결력을 발휘하여 협

조에 협조로 이끄러야 한다

以上을 요약하면 국토의 양과 사상
의 순례로 서로 대치된 현실이나 자
由를 수호하며 人間本然의 尊嚴性을
守護하는 까닭에 우방과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國利民福을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必要한 段階에 있는 復讐를 하기 爲
한 工業發達の 要請이며 끝으로 협조
정신의 양양이다

이 파업의 達成은 반드시 될 줄 모르
고 努力하는데서 부터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自由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이 民族을

統一을 하며 그러기 위하여 후진된

나라 工業力을 부흥시키고 협조정신
의 양양은 이 民族의 앞날에 굳건한
土基가 될 것이다 이 정신이 없다면
분열과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파거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임으로만 떠드는 협조정신은
자기 기만의 술책이다 밤하늘 / 무수히
많은 별을 / 이것은 우월한 사람의 마
음을 더욱 우월하게 하며 근심을 샀는
다 장망한 앞바다에 흘러가는 배...
묵묵히 북으로 다를질 치는 구름이
것은 나의 마음을 약동시키고 있다

人間思考方式의 힘은 오직 배움의 길 뿐이리.

끝

白日場

한글과 우리의 생활

陸 鍾 采

文字가 日常生活의 必要함은 두말 할것 없는 實이다 特히 文化民族을 自負하는 우리는 이 우리의 文化 文明 이 있기에 우리는 文化民族이요 文明 人임을 자랑하기에 부끄럽지 않음은 實

이다

우리는 一史를 살펴볼때 너무나 文字 와 民族生活과의 關係는 品을 수 없는 緊密한 것이란 事實을 發見하고 저 우히 놀랄 것이다 우리의 固有의 文字를 가지기 以前 그것은 中國의 文字를 빌어 썼기 때문에 우리民族은 또한 病的인 事大思想의 溫床을 提供 했고 아직까지도 우리 民族性에 그의 暗影이 完全히 拂拭되지 않은 事實 또는 李朝末부터 解放이 되던 날까지 日本帝國의 支配하에 우리의 一한글은

扶級の 悲運에 呻吟했던 事實等을 想
 起할 때 「民族과 文字는 共同運命體이다」
 라는 한 마디의 結論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것이다. 李朝四代 世宗聖王이 國
 字 없이는 百姓의 설음을 느끼시고 만든
 이 한글은 領布以來 가진 試練을 겪
 으면서도 獨고울 이룩한 오늘까지 우
 리는 民族文字로서의 이 한글을 保全
 育成 發展시켜온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國字 훌륭한 한글
 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國漢字並用을 未免하고 있는 現實이나
 우리는 이 한글에 發達과 淨化를 爲
 하여 우리에게 賦課된 使命이 實로
 重巨大함을 새삼스러히 다시 한번 二
 가지 양을 수 없다

일찌기 國運이 暗騰한 中에도 우리의
 生命인 한글을 지키시기에 몸을 돌보
 지않은 先輩任의 거룩한 敎訓받들고
 이땅에 젊은 일군은 한글을 빛내기에
 積極努力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生活을 더욱 빛나게 하는 結果
 가 될것이며 우리는 쓰기에 便하고
 보다 훌륭한 한글을 土音로 하여 보
 다 낯은 生活을 志向하는 우리들의 情
 意는 泰山같이 崢嶸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國字 훌륭한 한글
 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國漢字並用을 未免하고 있는 現實이나
 우리는 이 한글에 發達과 淨化를 爲
 하여 우리에게 賦課된 使命이 實로
 重巨大함을 새삼스러히 다시 한번 二
 가지 양을 수 없다

일찌기 國運이 暗騰한 中에도 우리의
 生命인 한글을 지키시기에 몸을 돌보
 지않은 先輩任의 거룩한 敎訓받들고
 이땅에 젊은 일군은 한글을 빛내기에
 積極努力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生活을 더욱 빛나게 하는 結果
 가 될것이며 우리는 쓰기에 便하고
 보다 훌륭한 한글을 土音로 하여 보
 다 낯은 生活을 志向하는 우리들의 情
 意는 泰山같이 崢嶸하다

이제 한글 頒布 五百年週年을 맞이하
 여 우리 이 생활에 利便 한글의 그마
 음을 다시한번 기리며 子孫萬代에 물
 려 줄 이 한글을 뒤고 갈아 빛날
 賞格을 새로히 하며 우리 한글이
 世界人民에 「보다」는 「生活」에 寄與할
 것을 祈願하는 바이다

(이글은 去十月九日 한글頒布 五百
 十週年을 記念하기爲한 金震熙先生
 이 베푼 白日場에 一席으로 當選
 되어 賞品을 獲得한 글입니다)

“圓滿”

結婚前에는 될수 있는대로 仁을 크
 게 드고 結婚後에는 半쯤 仁이라

“憧憬”

男子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에 始
 作하여 女子를 사랑하는 일로 끝
 나다

女子는 男子를 사랑하는 것에 始
 作하여 사랑을 하는 것에 끝난다

“戀文”

사람은 戀愛를 할때 모두가 詩人
 이다

“理性”

聰明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지못한다 神에 限하는 것이다

隨筆



지금으로부터 四年前

인 四二八五年度の 여름철

群山에서 當時二七才된

婦女 窃盜犯을 逮捕한 일

이 있는데 무슨 盜難報告

에 接한 것도 아니고 내

가 아끼는 短靴를 窃取

해간 婦人이 贓物을 市

場에 나다가 處分한 것이

서 트른 方法으로 取해서

인지 容易하게 直接내손

~25~

으로 逮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名搜查官이나
된 것치고 意氣揚々해가지고

職場體驗談

金容煥

派出所까지 同行해서 몇
마디 質問을 해보니 犯
行動機에 對하여 말하기
를 男便이 뜻을 다 음부
러는 物心兩面으로 들보
지 않기 때문에 오랜 苦

桐 끝에 집을 나왔으나
旅費도 消盡되고 해서 定
處없이 彷徨하다가 古주진
끝에 本意아닌 犯行을
敢行했다는 것이다 男便에
非人道的 所爲를 憎惡한
남어지 奮然히 家庭을
박차고 나왔다는 그가
몇일이 못가서 犯行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納得
되지 않을뿐 아니라 言語
道斷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에 依法처罰할 心算에서

그대로 拘引한체로 날은 저 이라도 "으악" 하는 에 서있든 親旧는 "집"

물었다 매마침 그婦人是 滿 아기의 우름소리가 (驚) 이라도 자라주라고

稱된 妊産婦였는데 죄를써서 날것만 같아서 나는 提意도 하였었다

免罪를 해볼라는 手段인지 불똥이 온것이 은근 나는 누구보다도 더

갑작이 腹痛이 나다고 하며 허 後悔하면서 罪는 애태우지 양을수 없었는

呻吟하기 始作하는것이 었다 容恕할터이니 當身갈 데 罪人을 잡아온 罪라

서트른 수작을 또 피우누나 대로 가라고 말해 고 할까? 웃지 못할 責

하고 放靚視했으나 그의 몸 보았으나 起動이 不 任感에서였다 三、四十分가

부림은 次々로 甚해 져서 能한 모양이었다 年 량 몹시 呻吟한 婦人은

浪出所内는 그의 呻吟소리로 老婦 上官한분이 女 多少安靜되는 氣色이 보

駭然했으며 나중에는 발뒤꿈 人의 손맥을 지펴보 이기에 이處方에 열마동

치로 下門을 미리 박차고 드니 틀림없이 產氣 안 依支해서 鮮産할만한

精神없이 도라가는것이 지금 가 있다는것이다 열 곳이 없느냐고 무렸으나

몇일間 宿所로 삼어오든	안고 하든 그 上典(?)	로 잡혀 거름을 절을대
獸待合室밖에는 없다는것	을 밀고 끌고 하면서	다시한번 안해 모습
이다 待合室에서 解産을	진압을 빼든일이 지금도	그려 보았다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	잊어지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남은 일
것인가? 여러가지로 빛	入院費는 追檢의 市當局	도 재태로 整理하지도
일이 꺼림직해서 나는	을 通해서 마련해 보기	못하고 命에 依據 尹嶽
생각 나는데로 命令하듯	로 하고 病院宿直者에게	山脈 堅속히 共匪討伐에
이 말했다. 이러나서요	단々히 付託을하고 도라	出戰하지 않으면 안되었
나를 따라와요 獸前에서	오는 길에 안되는 놈은	다
獨立病院까지는 西便으로	자빠쳐도 코가 깨져 하	
約三十分을 가야만 한다	고 증얼거리면서도 어테	
어두운 밤길을 約四〇分	인지 모르게 滿足하였으	
동안 조금가다가 주저	며 가닥 없는생각에 사	

四二八九、一〇、一五
以上

(수)
(필)

三井山기슭에서

金大燿



또 올해도 오곡이 파도쳐
 는 가을은 왔다 해마다 해
 마다 오랜 세월을두고 변함
 없이 찾아오는 가을은 이땅
 에도 왔다 하늘푸르러 눈아만
 가는 가을의 태양아래 처처
 에 희망속에 물으익어가는
 들은 샅샅이 황금의 과문을

지어가는 계절이란 확
 실히 소박한 인간의
 가슴속에 무엇인가
 만지기 어려운 희망
 의 실마리를 풀어주
 듯 제곡에 흐르는
 맑은물 붉어가는 감
 나무에 새로운 희망을
 상기하며 얼킨 그대
 보의 피로운 인생의
 행로이건만 희망의
 결실을 맺는 이들
 들(野)을 지나는
 무상한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秋波를 저도모
 르게 감수하며 스스로
 인생을 자의하는 것이다
 지금나는 이 아름다운
 가을 태양아래 물어익어
 가는 오곡에 철없는 젊
 음의 품이 재촉하는 그
 아름다운것들을 그리며
 삼각산 기슭에서 오늘
 하루의 고달픈 여정을 스
 스로의 행복으로 보내려
 했다 그리고 어제도 오

늘도 나 자신이 주는 자
 기 스스로 찾아야 할 행
 복을 위해 방황하고 을
 부딪는 것이다 인생이 흐
 르는 순간마다 나의 부르
 짐도 쉬지 않고 나대로의
 세계를 그리며 무척 괴롭
 다던 지난날의 추억을
 등에게고 막다른 골목이
 나 다니라는 이 바위의
 절벽을 아니 차뒀찬 샛
 길을 폭풍이 이리날까
 두려워하는 나의 가냘픈

하나의 축대를 의지하여
 인생의 꿈(理想)이 가
 려는 그곳을 향해 시간
 마다 쉬지 않고 에누리 없
 는 가야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는 고요한 대지를 울
 리며 나의 험소한 침실
 을 스며드는 아니 나의
 단꿈을 빼앗아가는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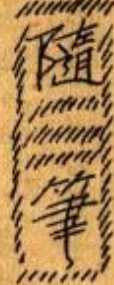
는 인간이 되기를 하
 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가치
 있는 더 행복한 오늘이
 만들어 지기를" 나는 자
 신에게 대말은 입술을 빨
 며 뇌자리기를 수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듯 어제
 의 짧은 하루의 여정을
 한토막의 꿈의 세계로
 이끌어 보내여 새날을 맞
 는 그 첫시간에 인간이
 가질수있는 한많은 옥망

고... 오늘도 이땅의여
 기저기서 내자유를 지켜
 주오 나에게행복을주오
 희망을 주오 이렇게의치
 는 겨레가 그얼마나 목
 말은 호소를 할것인가?
 이해못할 동물이 우리인
 생인 것이다 오늘도나는
 비무감지대라고 가르키는
 선생의 손끝을 따라 첩첩
 히 주를잡힌 북은산병어
 하늘아래 신음하다가 그
 대로 쓰러졌을 내사랑하

는 모든사람들을 눈앞에
 그리며 가슴을 스쳐가는
 어절한 감정에 몸을들려
 야만했다 이땅의 겨레들
 은 아나저 북쪽의 산기
 속 마을마다 희망에속고
 꿈에사는 겨레들이 오늘
 도 자신을 멸시당하며
 모진 생명물 이끌고 그
 들이 가르키는 미지의세
 계로 갈것이안는가? 향
 수에 시들어가는 나는
 이가을을 마저 하루의

여정을 오늘에 행복환
 날에 인생을 나의 벗인
 일기장 앞에서 회상하며
 내가 부르짖고 그것으로
 앞날을 장식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인생
 관이 나의자유와행복 그
 리고 희망은 오늘내가
 거닐은나의별길들 가는것
 을 스스로느끼면서도 나
 는그길에 뛰어들 의지와
 용단이 미약한것을 자신
 이 스스로 책하는것이다

一九五七. 八. 三〇



30分

金明壽

學校時間을 끝마치고 時
間을 알리고 派出所앞을
通過할무렵 時計는 20時
30分을 가르키고있다 時
間이 좀 있고보니 長安의
밤거리를 거닐고있는 衛
勳이 절로웃는다 그러나
兄任과 時間表가 발을 밟
추게한다 그瞬間 나는

스스로 自由가없음을 知
覺한다 너는 왜 느꼈니?
하는 兄任의質問 來日너
는 무엇을 製作定인가?
하는 融通없는 生活時間
表 / 나는 기운없이 발
길을 돌려 麻浦行버스에
乘車하였다 손잡이를잡고
時計를怨望하기 始作했다
그놈의時計를 만들어서
時間을定하고 時間表를
作成하여 拘束을당하니
當場 長安의時計라는데時計
는 全部 積근 積근 씩
어서 없애버리고만 싶다
이놈의 時計와 時間表에 全
身を바치기며 奴隸가되던
말인가? 自由를 擴張시키
는게가 되지않고 自由
를 減少하게 아나 더욱
自由없고 制限된 拘束生
活을 漸々만들고만 있으
니 自己가自己를 괴롭히
는 生活을 하고있지않는가?
나는 確實히 이러한生活
을 만들려고 그 누구에

게도 求하지 않았다 또
 制限된時間을 만들거지하
 는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天然과自然의힘에 依하여
 自由를 剽奪당하고 侵奪
 당하는 時間까지 억울한
 데 더 더군다나 나와갈
 은 사람에게 또 造作한
 物件에게 自由를 빼앗긴
 다는것은 무슨말이나?
 내가支配한다는것보다 내
 가하고싶은(天賦의權利)
 대로하여야만이 이것이

自由인데 하고싶은대로
 하지못하니 나는自由없는
 物으로 살지않으면 豈된
 단말인가? 어디 나라는
 存在를 밝혀보자 그렇지
 나는 언제든지 입버릇같
 이 왜우고있다 無識한
 "나" 내가잘아는 不完
 全에서오는것임이 틀림없
 는것이다 環境을征服할수
 있고 支配할수있는 力量
 이 없기때문인것이다 나
 에게나외에 力量만이있

다면 能히自由行動을 取
 할수있을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現在環境에依持
 해서 그힘을 鍊磨하고
 있는過程이아닌가? 環境
 에서 獨立하고 制約이없
 고 拘束이없는 나의處地
 를 만들표지 나는 지나
 간날 그수많은 裁判속에
 서 不自然스런 生活을하
 면서 싸워왔다 그러기에
 只今에와서는 裁制도적어
 지고 自由는漸々 넓어지

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자가 될려고 철학자 허

엇을 展望하더라도 그렇

나의 知性이 넓어 간다는 것

諾하는 限 그에게 教育을

다 一部의 爭取者들은

을 證明하는 것이리라 確

받았다 또 배워오지 않

人類를 籠絡하고 恐怖속에

實히 自由는 過去보다 넓

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서 보다 못지않게 可酷

어졌다 그러나 한편 自

얼마만한 自由로서 處世

를 내리고 있다 나는 감

由가 넓어지고 적어진 그

하여 왔는가 冷情히 理

작이 패로워졌다 又今自

때일을 生覺해보면 나

性으로서 判斷해 볼 때에

由를 넓히려는 自由는 他

는 나보다 많은 自由의 爭

그다지 옳은 自由의 爭

人의 自由를 縮少시키고

取者 밑에서 追從者가 되

取者들은 아니었다 自由

強壓과 束縛을 일삼으려

어가지고 음지여온 것이

의 勝利者 独占者들은 많

는 者가 될려고 하는 것이

며 自由의 爭取者 밑에서

은 사람을 傷해놓고 죽이

아닌가? 그렇지 나는

追從者가 되어가지고 음

고 바보 미치광이들을

그동안 조금이라도 自由

직여온 것이며 自由의 爭取

만을했다 또 只今도 現

의 籠網을 넓힌 것은 自

身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
 即 他人의自由를 蹂躪하
 고 해서 패로 되거나 양았
 는지 나는 티들어보지 않
 으면 前進할수 가 없다
 그렇다 1. 나는 侵害
 약탈을 당하여도 他人을
 패로 피지는 양이 하였다
 又今도 나한데 三年前
 同志의 便紙가 오며 또 그
 들은 자조 나를 訪問하
 여 主君한다 그러나 消息
 없고 오지 않는 同志들은 消息
 함으로 又今내가 希求하는 自由가

비록 얻어진 다 하 드라도
 그 結果가 結局 남의自由
 를 籠絡하고 權利를 蹂躪
 하게 되는 것이라면 又今
 이 瞬間부터 愈々胡오든 것
 을 버리고 차라리 追從
 者로서의 이른바 奴隸가
 됨이 生의 뜻이 있고 價値
 가 있는 것이 아닐가?
 又今 지고 있는 이冊과
 鉛筆은 確實히 그러한
 道具인지도 몰은다 이러
 는새 어느덧 빠스는 나

를 집어까지 실어 다 주고
 는 내리라는 信號로써
 크락손을 을리고 있다
 그러나 他人의 自由를
 制限하고 패를 피는 自由
 의 獲得者라면 차라리
 이렇게 制限된 生命의 속
 에서 生命이 意義있고 價
 値가 있을 것이다 時計는
 리時를 친다

檀紀 四三九年十月十五日

詩

激戰地 의 가을

서울 西北方 우뚝 솟은

延禧高地

여기 참을을 두고간

수없는 青春이 누워있다

一千九百五十年 初가을

나이어린 철이의 가슴을 괴 품고간

약화 스런 파발총알이 채 식기전



병아리 速記士

金泰宣

去 10月 31日

별다른 準備도없이 高大

主催의 亞南民國 模倣團

회의 概成速記士의 資格

으로 出席하게 되었다

八時半 議事堂에 八名의

集合이있어 張先生님과

金明珠 朴殿煥 卍先輩의

引率下에 乙支路方向으로

갈적예야 비로서 目的地

붉은 가슴을 부등켜 안은채

끓은 兵士는 쓰러졌다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 아들이기에

그날밤 어머니는

무서운 꿈에 소스라쳐 깨셨으리라

모두가 다

영영 잠들어버린

雪死처럼 차가워진 그 언덕은

果德萬年 永遠히

叔莫의 주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를 알고 모두 袖袒스러

은 興奮속에 잠기여 두

려외하는 感들을 禁치못

했다 우리가 가서 速記

를 할수있을까? 하는것

보다 우리도 이미 速記

士의資格을 가추게 되었

구나 하는 一種의 自賈

心이 앞섰음은 누구에

얼굴에도 으짖한 態度에

서 알수있었다

教分後 市立劇場앞의 長

몰서리 치는 戰爭이 아로새기고간
骸骨의 들에도

가울이 오면

싸들한 주검속에

이윽고 들꽃이 피어나곤했다

가마키 을고간 無名戰士의 가슴위에도

硫黃煙氣가친 별거벗은 要塞線에도

꽃은 피리니

붉은 꽃은 피리니



蛇陣을 이루고 있는 방

침개의 술을 끊고 병아리

運記土의 步舞堂々하게

드러가는 모습! 길을

비켜주면서 올려다보는

방형객들을 볼적이 구대

여 必要치않은 팔짓까지

해가며 一層左便에 맨앞

指定된 자리에 앉았다

張先生の 소근그리는

注意의 말씀을 듣고 後

에 到着한 二名과 함께



二名式 五組의 順序를 따
 고 速記道吳를 準備하며
 興奮을 鎮靜시켰다
 타임 九時三〇分 드디어
 戰開다 會議時間이 되며
 一組의 두사람은 武器를
 들고 深呼吸속에 未知의
 決鬥場의 臨하는 것이다
 고요한場內 議長席 審査
 員席 內賓席 그리고 演
 壇바로 밑의 한칸 남지
 한 참조 여기가 바로

師宅探訪記

張先生任宅은

것이다

오허려 心中속

探訪이라기보다

速記學校 先生

값이 흐뭇한 感

急襲이라고 하

生任中 가장

情은 느껴졌으리

는 것이 口味에

嚴格하신 (學生

라 先生任宅은

맛을껏 같다

張先生任宅編

昌成 Apartment 10호

野遊會를 마

친고 做家途中

물호이며 어머니

치고 做家途中

張先生任宅編

을 모시고 계시

先輩들과 함께

들의 共通된意

다

急襲의 計劃을

見) 先生任이

Prant 生活을

잔후 별안가

시지만 急襲에

하고 계시니 좀

달려 들었던

는 어찌하라

不便한處도 있겠

우리의 戰場이다 모든

視線은 舞臺로 集中되어

다시 한번 어찌들려고 이

會議의 重大한 役割이나

질머진 사람들같이 嚴肅

한 분위기를 개트리며

舞臺의 한발을 디디여울

왔다 이때의 傍聽席에선

병아리들의 어색한 걸음

씨보다 조용한 舞臺에 처

음을 라스느이들에게 조그

마한 尊嚴의 視線이 集中되

~41~

이시며 國會速	아직까지 未嘗	리라 先生任은	老總再 범서이	아미 그적이	범새가 나니	아름다운 화장	스자 향긋하고	방안에 들어	있었다	지만 室內는	깨끗이 整頓되
어디까지나	없어지겠는지	풍기나 언재나	지 總再범새를	했잖단 아직까	은 범새가 나	름답고 향기로	음보다 더 아	이제시다 변 지	이시다 師母任	記課老總再 同	廳의 한사람
생활을 하시리라	신다면 아름다운	師母任을 맞이하	그러나 앞으로	氣分을 자아냈다	으니 좀 쓸쓸한	별로 보이지 않	님이 안계시미	室內家具도 師母	셋남인것 같다	정손하신 先生任	은 집에 가서도

었으리 速記를 習得한지
 於焉七個月余 그 동안 듣고
 보아오든 速記士 마음의
 準備없이 數千名의 注視
 속에 응크리고 그러나
 으정한氣分으로 앉아 있
 도라니 그 모습이란 어
 색하였으리라 九시四五분
 座席整頓소리에 이어 閉會
 辭가 始作되었다 앞의
 先輩는 부지런히 손을 들
 린다 아직 우리 時間이

학교에서도

말성귀리며 酒

堂들인 우리들

은 先生任에게

년곳이 無音의

화살을 외부의

니 動作 빠른

신 先生님은

언제 마련 하

셨는지 극진히

우리들을 對接

하셨습니다 張先生

님의 어머니를

뵈며 어딘지

모르게 多情感

을 느끼게하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시고 仁慈

하신 어머니

이신지 절로

고개가 숙여지

는것이였다 速

靑界의 Top이

신 우리들의

張先生님은 어머

님의 사랑 못지않

게 孝子이시며

어머님을 爲하시

는것을 볼때 우

리들의 고개를

절로 숙이게 하

였다 오늘날에

우리 學生들이

張先生님과 같이

근은 意志와 忍

耐力를 가지고

오기前까지는 待機하고있어

야겠지만 무엇인가 두려움

에서 傍聽席과 演壇을 둘러

보지못하는 병아리 두사람은

突然히 鉛筆만을었다. 놓았다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不

自然스럽게 速記의 흥내를

내기始作하였다 演壇에선

무슨 雄辯을 하는지 나는무

엇을 쓰고있는지 모르고

그저쓰기만한다 갈겨버릴뿐

얼마다에 두어자곤 더퍼놓

每事に臨하면

得하는 速記學

다

고 뒤떨어지며 쓴다 실상

成功의 金字塔은

徒로써 갖일바

李太白이 못지

쓴다는것은 '하렸음니다' 程

眼前에 닦아올

많다는것을 말

않은 지푸진

度의 한번쪽 速記에 熱中

것을 確信하고도

하여 두며 特

술꾼들이라 嚴肅

해서가 아니라自身の 現位

남음이 있을것이

허 우리 五期生

한 氣分을 잇고

置도忘却해버리고 할수있는

다 張先生任도

의 伝統을 살

한잔 두잔 마신

테까지 ~추력에 매달리는아

다른 先生任들과

리기 爲하여

술이 흥을 도꾸

이들같이 ~쓴다 또쓴다 자

같이 우리 速

애쓰시는것을

게하고 노래와

꾸쓰기만하다 이렇게 자꾸

記學校는 勿論

볼때 다시한번

흥을 추니 '술'

쓰기만하는새 어느듯 雜多

速記界를 激하여

마음속 爽이 威

의 威力이 關 무

한順序도 지나가자 앞의先

努力하신 그功

銘을 貰으며

업고도 못슬것이

輩는 이제부터 쓰기始作하라

勞 速記를 習

머리가 숙여진

다 先生님도 疲

는 明確치 못한 회미한 웃

~ 43 ~

勞한몸에 조금

마신술이 흥을

도꾸게 하니

여러분 지금부

러는 마음대로

떠들고 놀아도

좋다고 하실때

先生在氣分도

매우 좋은신

모양이었다 별

꼴이 수집은

아카씨 모양

빨강계 되여가

지고 춤을 추

실때 옛날

流妓生 뺨칠만

한 춤이다

언제 배우셨

는지 잘추시며

또한 dancing

도 능란한 Horn

으로 추실때

亞然失色할 程

度다 運記도

잘하시지만 춤은

더 잘 하시는것

같다 平素에 양

전하신 분이 언

제 그토록 춤을

배우셨는지 또한

노래도 피코리씨

상으로 잘하셨다

법을상은 Ocklata

로 化하며 文字

그대로 우거지상

이오 수저도, 옛

음을 남기고 술직壇을 내려

올때 병아리들의 두려움

이제까지는 그래도 믿고써

보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이 써야된다(아 혼자 써야

되나 責任지고 혼자 써야

되느냐 말이야) 이때의 병아

리눈은 天井 아니면 一定한

方向있이 멍하니 헤메였을

게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第一七次本會議를... 딱딱

고시五문에 議長의 死刑棒

先生任은 特히	아프셨으리라	님 머리도 좀	치들이니 先生	짱 두둑한 플	하오리카? 배	한짓이니 어찌	나 弟子들이	은 모양 그리	運記文字를 만	양 뒤였으니	가래 모
그 心情 이려	索에 잠기실때	로 방안에서思	다 週末에 놀	부하신 모양이	球의素質이 풍	다고 하니 撞	上을 突破하신	球는 七〇貞以	아 하시며 撞	고 映畵를 좋	音樂감상 그리
어제밤에도	베 정팔	는 꿈만 꾸	같이 장가드	요새는 每日	그림답나다	가라	아직도 미장	나 이 三十에	어보면	舞의 노래를 적	하리라 卽 老總

은 우리고 나는 싸야
 했다 어떻게 鉛筆을 쥐
 고 쓰고있는지도 모른다
 "Time" 하는 앞사람 소
 리에 벌떡 일어나 후들
 후들 기어나오는 주재의
 舞臺에서만은 豪氣있게
 거러나와 座席에 앉았을
 때의 安도感만은 정말
 나만이 갈수있을기가 그림고부나
 Change해서 한참소요있는 병
 아리들이 처량하게 보覺
 되어진다 그리고 한대

앞집에 큰애기	마찰한것 어데
를 품에 보았	있어야지
지 그러나	그러나
2 입 언청이	何如間 師母在
그것을 믿으	이 안계시며
라니 죽는게	솔직한 氣分은
났지 아무리	느끼시나 先生
시장한들 개	님은 언제쯤
밥이야 먹겠	結始하시려는지
는가 정말	先生님의 當面
창가 들맡은	課題이리라
간절 하네	다만 알승 달

승한 일.....

石頭生



피어 무는 담배는 왜
 그렇게 달고맛이 있는지
 또 " 手功했어 퍼 힘을
 지 " 이와같은 張先生님
 의 激勵하시는 웃음 앞
 에서는 緊張이 저절로
 풀리어 짐을 知覺하게 된다
 30分後에 그대로 석々하
 게 (???) 걸어 나오는
 C.P의 몸이 축그러져
 보인다
 一시四五分 五월가 다

지난 十月

二十七日

午前九時 몇사

람은 鄭先生님

定을 訪問키로

했다

鍾路區 鄭農洞

大覺寺뒤에 位

置한 鄭先生님

宅 韓國式 커

다란 大門을

드러스니 안大

門이있고 또한

나의 문화를

남어서야 內庭

整然하게 놓여져

있다

어서들 드러오시

모 하고 勸하시

는 鄭先生任 말

씀에 一行이 조

심 / \ 히 드러스

니 微笑를 띠우

신 鄭先生님은

이 끔개 피여있

고 되마루에는

람스러운 花분이

있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끝나고 두번째의 들어가

서는 철신 沈着하게 설

수 있었다

間或 餘裕있게 二層傍

聽席도 회이들러 보고

議席에서 고함소리가 나

면 한번 노력도보고 實

로 웃은은 일이 아닐수

없다 한번의 經驗이 이

권 큰도움일줄 이야 내

時間이 지나도 一〇수가

량의 쓰고살고 待機中에

자 덜	아	로도	運結이되	아드남	어리女息
오히고	방석을	어있는데	우리	한분과	長成한 男
勸하시면서	우	食口로는	다	同보이	게시다고
리집이	그지	使用치	못하고	하며	家風으로는
이렇습니다	하	賞도	동고있지	東洋道德에	徹底하
고	또	편히	오	하고	說明해
앗기를	권하신	주신다		여	우리나라
다	先生님	定이	九十餘	來의	禮儀와
아주	大	칠입나	부이나	된다	고
다	하고	점사	하며	家族으로	
말씀에	應	했드	는	兩親을	모
나	네	이	뒤	시고	師母님

에도	그냥	쓰고	아주	老練
한	氣分이	난다		
演壇의	議員은	雄辯練		
황을	하는지	말은	빠르	
고	어떤	議員은	입속에	
우를	<	이를	때	限해서
만은	가	강	빠르게	그냥
주욱	그	어	댄다	
二時의	停會			
우리	들은	재	멋	대로의
氣分에	도	취	하여	特別히
提	拔	하여	주는	食事를
먹				

~49~
 오 하고 말씀 올리고
 올리니 뒤...
 "천천히 하지" 하시며 그리
 싱글빙글 하신 다
 의들 先輩들도 이렇게 밤중에
 先生님은 뒤 여드레 불안당
 은 없었지요? 으며 數百石
 아나니 우리집 收穫의 農土를
 이 中央地帶가 가지고 개였는데
 되서 밤에도 又今도 故郷에는
 많이를 놀라오 親戚들이 많이
 는걸 하고 밤 시며 夏節에는故
 에 찾아온 우 鄉에서 고기잡이
 리들의 未安感 로 즐길 때가 많
 을 시서 주신다 으시다고 한다
 先生님은 본 國會速記士들로부터
 來 坡卅에 先 더 어머니라는
 稱을 받고 계 稱을 받고 계
 신 先生님의 姓 品을 말해주는듯

을때 그맛이란 여러분들
 想像에 마킨다
 午後의 第二讀會가 統
 開되었을때는 무두態然하
 게自己順을 기다릴수 있
 었다
 外資導入促進法案이 通
 過되고 兵役法中改正法律
 案이 건지하게 討論되어
 이 模範會가 果然 一〇万
 의 送良이 물론인國會같았
 다

室內은 케니스	까지는 안해도	어떻게 했으면
래디오, 魚항	되지만 若干	速記術을 普及시
等 모두 物품	도왔다는 말	켜 有能한速記士
있게 꺼꾸이	을 드를程度는	를 많이 養成할
장식되어있다	돼야지요 하고	수가 있겠는가
先生任 速記라	하시는말씀이	하는것에 沒頭하
는것은 一年이	亦是 專心努力	시다가 하루는
면一年 每事를	이必要하다는말	金鎮基先生님과
게치놓고 必死	씀이 였다 우	同宿하든자리에서
的으로 努力해	리速記學校와의	學校라는 두字에
야 되는것인가	因緣을 무르니...	着念하게되어 金
오 뒤 그렇게	速記士가된後로	先生님께 어이

이렇게 좋은 練習과 實驗을 兼한 Chance 를 갖게하러준 張先生님과 두분 先輩에게 感謝를 올린다

한번 두번 이어서 二 번째의 速記하고 나왔을 때는 次時가 거의되어 이미 밖은 어두어 졌다 次々 疲勞해지고 물이 千斤 萬斤되는것 같다 그래도 원만을 빠르지

鑣基 내가 又今 成功하였다고
 이런 것을 構想 한다
 했는데 어떻게 其間에 苦勞
 는가? 하시겠 는 우리가 어
 드니 그저 참 제 想像할수 있
 좋은 생각이야 으랴 性品이
 하고 기뻐하였 仁慈하시어 어
 다는 것이다 두 머니라는 別名
 분이 그 자리에 을 가지신 先
 서 計劃을 세 보님은 우리 學
 운 것이 成就되 校를 辦으신
 여 學校設立에 어머니나 이시기
 先生呂宅에 總會

三。分乃至 四。分式
 四番 速記했으니 두時間
 은 더 速記할 셈이다
 종이 가 四。枚가량이 擘
 찢고 擘는 内体勞動한 것

많은 發言이나 明確히
 많은 發言도 귀에 의혀
 저 슬스 연필이 달려
 주는 대는 若干의 自身
 도보겨 다음 槓會에는 좀
 더 냥게 速記할수 있을
 것이다

함해서	一同이	謝한	생각에	머	개한마리가	표리를
무릅을	구피고	리가	수그러질	저으며	달려든다	
鄭重히	앉아서	뿐이었다	우리를	先生남	大家이	시로
약주를	올리며	위해서	차려주신	군오	네	참 좋아
저의분이	무두	많은	飮食을	해오	하고	연상
張先生님	弟子	들러싸고	十二	개를	스다	듬어 주
이름나다	하고	時까지	이야기	신다		
말씀을	올리	로	꽃을	피우	러우려서	안됐는데
나	대우	滿足	다가	방문을	나	하시면서
하신	表情이	시	왔다	先生님의	이	다라나
드라는	이야기	黃狗	〈	하고	것이	였다
를	듯고	우리	소리	치시	나	어
一同은	그	귀	감	다	서	인가
					누	런

H 보

과 같이 疲勞하였다
 如何든 힘든 일이였다
 여지로 빠른말을 받아
 쓰자니 一〇種 一五種의
 運記文字가 억망이라고
 뭐가 뭘지 모를程度로나
 자빠져있어 더한층 練習
 의 必要를 느꼈다 언
 제와대신지 반려다려주시
 는 金震熙課長님과 피곤
 할테니 먼저 가보라는
 張先生님께 人事를 하고

十月 상달 하늘높이

반짝거리는 無數한 星座

싸늘한 가을바람을 마시

며 거리를 活步할때 이

상한 感情에 흐르고

야릇한 氣分을 자아

내니 點음의 象徴이

였으리라

우리 올챙이 記者團은

放課後 金先生任의 뒤를

따라 孝子洞에 자리잡고

있는 昌成아파트 三〇

九号室로 들어섰다

A P A R T 生活을 하고

계시므로 宸團도 共同宸

團이라 불뭉이 그리없었

다"어서 들어들 와"



하며 들어가시는 金先生

任의 뒤를따라 들어서니

반가히 맞아주시는 師母

任 저푸른 올챙이記者들

이라 凱旋將軍인양 들어

C, S와 같이 어두

운 거리에 나왔다

揮恍한 레온싸인

어제를 나란히 걸어

가는 사람들 틈에

파곤한 우리의 발걸

음이 비를거린다

이번 槓會를 갖지

못한 學兄들에게 이

런 槓會가 또있기를

바라며

섰다

師母任 / 또 왔읍니다

어오는 金先生任의 長男
우철君 아빠 품에 안기

先生任도 S e n c e 가
빠르거니와 師母任은 그

그럼 자주 오셔야지요

며 우물 (카라멜을

以上이다

어서들 앉으세요 하며

먹을때 어찌건 그렇게도

우철君의 재롱 우리

얼은 微笑를 띄우시며

품은플인지 머리는 장구

을칭이記者들은 우철君의

活氣된 語調로 반가히

形의 이마는 대머리 눈

의 對話다 아씨도 주어

마자주살때 조금 未安한

은 精氣가 넘쳐 흐르니

야기 자 나도 하며 재

感을 느꼈다 先生任 家

將來 金先生任은 問題畝

롱 띄는것을 보느라고

族은 어린男妹와 單四食

으리라 家具도 깨끗이

야단법석이다 實은 食事

口이며 故郷에 父母任이

整頓되어있으며 명랑한

를뫼해 조금이라도 補充

게시다고 한다

氣分을 자아냈다 明朝한

할려고 弱者의것을 벗는

목소리 앓아 있노라니

氣分을 더한층 살리기

것이다 우철君을 보면

큰 강아지 모양으로 기

爲해 그 무엇 : 다만

볼수록 金先生얼굴을 쳐

다 보게 되니 果然 아버지

의 威力 文字 그 때로였다

술을 좋아하시는 金先生

이라 올챙이 記者에게 술

을 권하니 올챙이 記者

들은 滿面에 喜色을 띄우

며 연방 술잔이 왔다

갔다 술잔도 醉해 오는

것 같다

金先生은 지난날의 苦

喪 卽 우리 速記學校에

對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들은 感銘코게 들었다

苦衷은 大概 이러하다

우리가 現在 平安히

工夫하게 된 것도 先生任들

의 숨은 勞苦가 많았다

는 것 釜山에서 부터 發

足を 보게 되어 當時 몇

분의 後援과 몇々 國會

議員들이 애써 주신 德澤

으로 지금 現在 이 같은

發足を 보게 되었다는 것

이다

하로 밤 사이에 速記學

校 탄성을 보게 되었으

니 하로 밤의 歷史가 오

늘날까지 持續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感謝한 마음 兼할수 없

었다

어느덧 通行禁止時間이

넘어 올챙이 記者들은

할수없이 先生任宅에서

할 때 永安하고 罪悚스러

웠지만 할수없는 形便이

고 또한 자야만 되겠다

는 心情들이다

何如間 우리 올챙이

記者들은 오나 가나 말

우리 金先生任의 趣味

總總도 느끼 실런데 그

생 / 푸리고 作亂꾼들이니

는 주로 登山을 좋아하

래도 이나라 速記文化를

이것도 五期生の 傳統일

시고 旅行을 좋아하신다

爲하여 献身하시겠다는

까?

고한다 遺末이면 節母任

그 固執한 關志力 우리

너무도 有名한 族屬들

파 함께 젊은 그날을

學徒들 心憤을 더욱더

이라 다시한번 의심을

想起하며 散步하시는것이

복돋아주며 速記가 內色

자아내게하니 自我의反省

一連日의 疲勞를 딛다고

한 眞理를 더한층 認識

이 必要할것이리라

하시니 大端한 愛妻家이

시켜주시 지낸날 先生任

그러나 學業에 臨할때

시다 아마 同夫人하여

들의 功勞 이제야 빛나

는 모두 緊張된 態度로

疲勞를 잊는다는것 여간

는것 같다

速記를 할때 또한 五期

한 精誠이면 못하리라

특히 先生任은 歸家後

生도 先輩들 못지않게

速記生活이 於焉 十年

즐거운 時間을 가지시는

따라갈수있을것이다

을 가까이 하니 이제는

것은 우철君의 재능이

리라 올챙이 記者들을
 가장 印象잔게 한것은
 짱구 우철君의 재롱 한
 동안 童心에 젖어 우습
 판을 꾸미는 場面이니
 다시한번 童心에 들어가
 고싶은 마음 그 어티다
 비하라 짱구 우철아 바
 이 빠이 안녕 /
 아친 핏발은 올챙이
 記者들의 눈을 부시게
 하며 상패한 氣分을 자
 아네니 來日의 光明을

알려주는듯 올챙이 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푸른 希望을 가슴에
 갖고 거리를 活步하니
 天高馬肥 菊花之節이더
 라

Y生

隨想

“ 独守空房 ”

崔龍夏

고요한밤 홀로 의로

리 두근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오늘의 現實과
 來日의 未來를 머리속에
 그려보면서 한없이 아픔
 다치만가는 過去라는 수
 에 숨어있는 가지가지의
 遺徳들은 속절없는 눈물
 만을 흐르게 하고있는 이
 瞬間 / 이렇듯 눈물속에
 서만이 몸서리쳐지는 이
 現實을 이겨낼수있는 몸
 이기에 그다지 괴로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딘

지 모르는 사이에 가슴은
 몽클하고 의로움의 追憶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때는 으레 허 눈물만
 이 過去에 쓰라린 상처
 를 어루만져주는지 / 오
 늘도 이時間的 空間속에
 서 無意味한 生活을 하고
 있기에 가슴아득히 여기
 며 이것을 대신해서 눈
 물이 흐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라고하는 構寫를 받고
 있는 人間이라고하면서
 한낱 개와 돼지의 生活
 꺾이 無意味한 生活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
 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에
 人間으로서의 特色있는
 生活을 하려고 努力하는
 가운데에서 “살”이란 存
 在하는 듯싶다 오늘도 이
 평한 無價値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이 事實

을 만들어준 것인지...
 어김없이 흘러만 가는
 時間속에서 本意하닌 쓰
 라림에 歴史나 피로움에
 歴史가 創造되어 가는 것
 이겠지 / 아마 지금은
 밤도 짙었는지 그렇게 드
 시고립된 雜音은 사라지
 고 가람서 문풍지를 스
 처가는 바람소리만이 들
 릴뿐 조용한 밤이다

이 고요한 時間에 홀
 로 앉아서 過去를 回想

果然 萬物之中에 영장

죽기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다 어딘지 모
 르는 그리움속에 안타까
 운 心情이나 괴롭고 즐
 거웠던 그 瞬間 瞬間이 모
 두가 다시 올수없는 것
 들이기에 回想하기에는
 괴롭다고 해야 할지 자라
 리 다 지나가버렸으나
 幸福이라고 해야 할지 /
 그러나 과거가 준 한가
 지 . . . 이렇게도 외로운
 心情을 가지고 외로움에

孤獨을 스스로 즐겨야
 하는 안타까운 心情 /
 이것은 果然 어찌서
 부러웠으며 또 구저
 할수는 없는지 | 이
 것은 어쩔수없는 性格
 의 탓인지 그렇지 않
 으면 運命의 작난인지
 도 모르다 비록 性格
 이나 運命의 作亂이라
 면 이다지도 괴로워할
 必要가 있나 어찌면
 이것은 수많은 親旧가
 있지만 그 많은 가운데에
 서도 心的으로 通할수있는
 참한사람을 사키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운 心情으
 로 이끄러왔는지도 모르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보
 다도 來日이라는 希望에
 찬 未來가 있다는것은 안
 타까운 心情에 화살을 막
 어내는 방패이기도 하다
 이 방패가 없었던들 아주
 失望해 버렸을지도 모르다
 그러나 決코 未來가 있

다 고 해서 放心할 問題는

아닐 것이겠지 / 未來의

幸運이란 저절로 다치는

것은 아니다 幸運이 찾아

어 들기까지에는 모—든

것이 具備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직까지 없

었던 幸運이 앞날에 저

절로 생겨나기를 바라기

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닌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未來를 마

음피로 幸福할 場面을

그러 보는 이 瞬間 어 떤선

지 努力하라 努力하면

너의 꿈은 實現될 수 있으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렇다 그것은 事

實이다 비록 몸은 現在

會에 있을지언정 精神만

은 理想만은 먼 未來에

있지 않는가 그러기에 그

未來에 든 理想을 찾아

가는 길 이기에 그곳에

到達할 때까지는 어떠한

困難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도 너를 찾아 반

거름이 되었는지 한 거름

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를 向해서 거

러가고 있는 것만은 事實

이다

너를 찾는 날 永遠히

幸福할 수 있으리라

四二八九年一〇月

崔龍夏

봄이 希望의 季節이라

면 가을은 確實히 追憶

의 季節이어늘 속절없이

어래우며 말없이 くだ

나는 落葉은 蕩없이 버

림을 받아 땅위에 있다

나는 落葉을 사랑한다

높고 맑은 가을하늘도

愁心を 담은듯 느뭇거리

는 落照의 무렵 希望을

포근히 안은 두 男女의

결음거리에도 落葉이 덩

글고있다 그 두 男女는

그얼마나 幸福할까요...

깃전을 스치는 사늘한

바람속에 密語를 주고

받으며 定處없이 轉러만

가는 사랑의 마음...

秋夜斷想

黃善明

그것은 다만 靚음의 修

飾없는 깨끗한 慾求이리

라

落照의 거리 네온의

거리 기쁜 愛人들의 心

翠를 울리는듯 銀杏의

누른잎을 떨어뜨리니

아... 아름답게 속삭이는

사랑의 高貴함과 神秘로

움이어...

遠記의 神秘性과 사외

神秘한 技術을 習得하되

다는 우리의 마음 정영

가을은 가는구나 발길에

끌려다니는 落葉과 함께

눈보라 치는 冬將軍과

갈이 손을 호호 불며

技術의 練磨 이것도 眞

理가 들었으리라

青春의 象徴이런가

苦惱를 토막 / \ 엮어가

가을밤은 消怠없는 밤

落葉을 발길로 차며 舖

며 未知의 大海를 漂流

을 기다리는 季節 故로

道를 거를때 침울한 感

하거니와 즐기찬 希望도

한 어둠에 쌓인 을 밑에

情에 사로잡혀 거름을

갓았으리라

서 커투라며 숲이 울때

멈출때 짐은 男兒의 純

太陽의 빛도 온누리에

바누질하던 손뼌추고 乾

情도 짓들었으리라

서늘퍼진 族屬들의 가슴

은 명상에 잠길때 남의

男兒의 純情 落葉파함

을 파고들며 실낱같은

모습 아롱거리며 애처로

게 사라지려는가?

希望을 북돋아 주어 戰

은 表情을 다시한번 그

고리 간직한 純情도

場에 나서니 絶好의 季

린다 포근한 젓가슴을

조용한 가을저녁의 神

節

단정히하고 幸福에 젖은

秘性에 陶醉하였으리

조용한 晚鐘의 餘音

지낸날을 상기할때 이것

마지막 落葉이 몸부

이리라

도 幸福의 外形이런가

림지듯한 年輪의 벽판

(詩)



祖國

申丙均

그것은

時代를 넘어서

詐欺와 獨裁를 拒否하는

平和의 象徴

상상한 ฝัน가 되여

遙遠한 理想에 보람을 겨누고

沈黙의 美德을 아는

意慾의 群이 있다

都是 기막힌 이야기 이었다
 羶痕의 痕跡이 사라지기 前에
 아름다운 未來를 爲하여
 제마다의 가슴속에
 먼 훗날의 記憶을 爲하여
 고향 아로 식이리
 여기 羶兩의 스나비가 멈춘
 터 없이 不安한 마늘에서 도
 善良한 羊떼들의 찾아야 할
 方向은
 비둘기떼 나르는 地域일지니
 아! 그것은 平和의 象徴

어찌구니 없이 焦土가 되어버린

이렇듯 눈물겨운 터에서도

살뜰한 우리의 無窮花는

힘찬 그 줄기를 뻗었다

그것은 눈물과

한숨만으로

이루어진 意慾은 아니였기에

먼 未來의 世代를 向하여

뜨거운 피(血)와

새로운 意慾을 간직하는

우리들의 永遠한 땅이 있으니.

「便紙」

“ 남에게 부치는 글 ”

고요하고 아름다운밤 꿈 많

은 밤이였어요 남색의 江취

를 고요히 흐르는 별 사늘

한 江바람이 少女의 머리카

락을 잔지럽게 날리는 밤이

였어요.

나는 넘어가는 初生달을

따라 조용히 江가를 거닐었

어요 정말 우연 그 때 금였

지요 처음 江가에 누워 하

나는 저물어가는 가는

가을날의 日曜日 湖水를

꿨았다 黃昏이 질어가는

불은 노을속에서 反射하

는 太陽빛의 아름다운

絶景을 湖水邊은 물에

몸을 잠기고 말았다

오늘따라 바람한점

☆ 隨想 ☆

落葉과人生

申根植

없이 고요하다 잔잔한

물결엔 가끔 고기떼의

노는 소리인지 물방울

소리만이 聽覺을 이르기

고 물결에는 저잡은 동

그라미만 그려지곤 한다

湖水위엔 大海의 一葉

片舟인양 褐色의 落葉만

늘의 별만 새고있는 當

身을 만났을머는 좀 당

황했어오 그러나 그것도

그순간 사라져버리고 當

身과 이야기 할수있었어

오 아마 물에 흐르는

별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當身은 아

름답고 Sentimen

타리한 女性이라는것을나

는 알았어오 그래서 나

는 거기서 當身과 정갈

로 즐겁게 幸福스럽게

이 등실떠 있을뿐.....

이처럼 고요하고 寂寂

한 湖水에 파음만이 조

이는 내가 돌바위에 앉

아면 꿈을 꾸어본것도

過去에서 찾아볼수없는

오늘이 처음일이다

落葉 /

아득한 追憶인양 새삼스

럽게 「落葉」하고 임속에

서 외워본다 시원한 가

을바람과 쓸쓸한 모습

벚꽃, 希望의 꿈을 가슴팍

에 새겨지는 落葉의 語

感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서 나의 二

十年 동안의 追憶을 생의

吟咏가 어찌했나 새겨보

기도 한다

二十年이란 決코 짧은

歲月은 아낀것이다 山川

草木이 變換것도 分明히

스르번은 번갈아 했고

또 더했을지도 모른다

少年이 青年이 되고 靑

年이 壯年이 되고 壯年은

自然을 繼賞할수 있었어

오

그때 當身은 '나는 저

江위의 별이 第一아름다

워' 하고 말했을때 나는

그별보다 '순히'의 반짝

이는 점은 눈동자가 더

아름다워' 하고 微은 微

笑를 띄우면서 나는 또

이어서 그는보다도 '순히'

가 더 좋아 그 보드러

운 머리 그리고 또 하

얇고 빨간 밤 / 하고

老人 이 되는歲月이 갈
래말이다
落葉도 봄이였
當舖의 머리와 잎판을
어루만져 주셨죠 나는

이렇듯 落葉은 少
나루앞에서 싹
지금도 잎풀이 간지럽고
그목소리가 들리는것 같

치서 落葉이 되어
이다 떨어지고
에요 그리고 또 조용한 목
소리로 읊으신 詩 내가

손간 떨어지며 가지
보니 그것은
다시 들려주고 싶어요
잔잔한 江바람 살며시

을젓이다
落葉이 아니라人
이다
얽으며
希望에 깃들인 그대와

生이 꼭 이렇다는
핀 落葉은人
함께
졸겹게 속삭이는 나의

젓이오 꼭 가을의
生의 그무엇과
노래는

落葉을 등진다는것이
갈을젓이다
即 落葉이관

생의 終未를 意味

川草水과 더불어

술은 구름 걸어가는

이기도 하다

우리 人生이 時時

바람이 된다

生存競爭에서

刻刻으로 變化해

정말 그때 當身은 無

敗北한 生 工自

갈때 이찌 나의

限한 술음에 잠긴것 같

体다

二十年的 歲月을

있어오면 하느만 바라

申宙의 推象論

소플히 우습으로

보고 나는 그 술음을

이나 事物의 變

만 보너고 말것

잊게 해주고 싶었어오

化論에서 볼수있

이나? 참!

그러나 그것은 헛수

는 千變萬化說

宙宙의 起源이

고였지요 지금 또 생

或은 千態萬象

燕石이나 粒子나

각이 나는군요 그때 當

即 이 모든것이

自然이나 神의

身이 피로운 듯이 말한

變化의 原則을

創造나 하는 구

것은 ...

証明한것이니 山

대여 論하고싶지

서울의 밤은 전등불

많다 나의 生活
 을 通해서 經驗한
 그대 事物의
 變化를 불패 二
 十年의 歲月은
 決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
 다시 깨닫는 것
 이다
 나는 오늘 이
 湖水가에서 落葉
 에 사로잡혀 情
 緒感에 시들고

말았다
 無限廣空의 一點
 白雲 無辺大湖의
 落葉 千千루 거
 을에 映고 反射
 되는 紗景이다
 卍가 畫家가
 아니고 詩人이
 아니었기 多幸이
 지 畫家나 詩人
 이었다면 필경
 畫中之美를 一幅
 의 그림으로 詩

들이 曇추는 밤 그리고
 어지러운 밤 : 밤이 靑도
 록 俗世의 소음만이 들
 리는 밤이라고 二려나 지
 금 여기는 清明한 하늘
 에 아름다운 별만이 잔
 잔한 물속에 浮류하며
 사공의 筏노래만이 은연
 히 들리는군요 !
 아 - 나는 여기서 永
 遠히 當身과 함께 있고
 쇼어 / 하던 말이 아
 직껏 나의 口막을 痛드

두어근 어찌 살이라도 쥘것같이
 손바닥만한 거울앞에 일필을 속내
 여말였을때에 나의 놀라움은 나로
 하여금 비록 불이 되게하였으니
 이무슨 환상인가
 평평하고 박력있는 어깨살 뺨아
 라도 부벼대고 싶은 포동 포동한 손
 악어가는 능금같이 붉어오는 뺨 야
 무진 입술 예지가 깃든듯한 눈매
 수밀도 같이 부푸른 앞가슴
 오 | 나의 天使요 그뿐이라 한
 마다 환음조도 빼낼수없는 콧노래
 어린아이 같은 몸짓 이얼마나 때

좁은 一煎같은 個人을

비웃듯이 싱글 빙글 웃

으며 산키로 나타내면

나의 부푸러 오르는 가

슴은 품어 올라 갔지요

그때 體身은 나에게

詩를 불러 주셨읍니다

康山에

포망한 太陽

황홀한 빛은

내 눈을 감게하고

물위에 아름답게

재석한다

력있는 優美한 「선」 이라 親愛하는 벗

그러면 모래는 더워지고

종각들이요 나의 심정을 심분 理解해

뜨거운 太陽 내몸 켜

달라 사뭇이 일어나며 한바퀴 돌아

감는다

「윙크」 라도 보내는 듯 까풀전 눈울

잔잔한 물속에

잠박이면서 거울에서 살어졌을 때야

내몸의 파문

후 | 가슴속이 후련 시원 섬섬하다

머ल्ली 그리면

그러나 또 순간 경이와 함께 광홀속

나의 숲은

에 視線을 떠지 못하게 한 것은 다음의

열리 사라지고

장민이었다 느러지게 하품을 내어

오직

뿌부면서 살포시 내어뿜듯한 앞가슴

물속에 줄거음 만이

을 들어번 그 모습 지금 막 동통한

수머 든다

꿈에서 깨어난 듯 흐터진 머리를 가

아 이젠 너머 오래

다듬는 보드러운 잠옷에 그 짙룩한

넋두리를 환것 같군요

허리를 한 자라는 이 열마나 심심한 살고기를 눈앞에 나는 當身이 보고 싶어

둔 누대의 근심이래 가벼운 어깨를 은은한 멜로디 요 나는 품에도 當身을

에 스럽이라도 밟는듯 흐들면서 화장을한 장미같이 만났지요 정말 그러면

아리파운 아가씨를 찬란한 햇님과 도전 하려는듯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명쾌한 「쓰푸라노」 쓰나타를 하는지 쓸로워 합장을 차고 | 그날 | 그곳 |

하는지 한가락을 뽐으면서 오늘도 머문을 나서지 지금도 그곳에는 아름다

않느냐 아이야 노지면 아까울세라 초승도의 등자르 운 품만이 잔잔한 江欸

로 획돌아보니 맛들창난 이웃집에 저녁방에는 크다 를 호를 띠지요

관 정머만이 오블의 日課를 마쳤다는듯이 매여달려 그럼 녀투리는 고만하

있고 그들 女人의 등뒤에는 아직도 향훈이 넘치는듯 고 펜을 놓겠어요 窓窓

라 | 라 | 土曜日は 그대와 함께 라 | 라 | 콧노래 은 하세요 안녕

은한 가운데 저 끝목길로 사라져간다 쿠장을 나오는 } S 生 올림 <

공허하고 허황한 氣分같이 시무룩하여서 의자에 주 저앉으니 「라우드 스피 | 키」외 라디오는 民으로義의 예찬이 환참 바빠다 「홍 그림의

떡이야 「허을 좋은 재살구야」 이 두마리는 나의 외수속을 가고 또 가고 스쳐갔다



紀
行
文

(僧伽寺)

朴 傑 和

九月三十日 日曜日

午前十時에 副校長

先生任을 비롯하여 세분

先生任을 모신 우리

一行은 一路 僧伽寺를

向해서 國會議事堂을 등

지피 될 될 클러 가는

버스간에도 벌써부터

和氣는 만만한 가운데

複雜한 서울 世宗路距離

를 날카롭게 소개하는

크락손 소리를 쫓아

였으므로 國際電信電話局

財務部 京畿道庁 中央

庁 海務庁等 國家要公

共建物들을 구경하면서

어느덧 大統領官邸를

등에 걸머진채 버스는

洗劍亭을 向하여 到着

하였다 이제 우리는

막상 目的하였든 僧伽寺

특만으로 머리는 가득하

다 一行中 거의全部

가 이번 소풍에 初行

인지라 豫測할수없는

이상야릇한 好氣心에서

발은 ㅅ분 ㅅ 잘 걸리

였고 僧伽寺는 夢想到

어리었다 별로 다른걸

과 다른점이 없었다 다

만 推測할수없는것은

바로 그規模이었기에

莫慈히 大端히 큰것이

겠지 그러면 크면 佛



이것이... (A decorative title or header for the text, written in a stylized cursive font.)

國寺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황하면서 설
 으면 걸을수록 길은 險
 험하기 그지 없는 골짜
 구니 일복만 아니라 모질
 게 소긴 들맹이 들이 비
 쪽 비쪽 나와 있다 그러
 나 一行은 조금도 사
 기를 잊지 않았으며 이
 自然을 征服하고야 말겠다
 는 意慾이 뼈대속까지
 다 그런가 하면 한편
 僧伽寺가 하루바삐 眠

前에 나타나기를 츠근
 히 기다리기도 하였다.
 아마 이와 같은 分冊氣
 는 오늘날 소풍의 效果를
 100%로 올릴수 있을 것
 이라고 나는 마음속에
 갚이 간직하기도 했다
 우리 一行이 中마루터
 에 올라왔을 때는 이
 미 大部分의 사람이 다
 들이마에 맘을 씻거나
 윗저고리를 벗고 汗바탕休
 息時間이 되어 버린다 풍
 어 앞으니 여기 거기서

閑談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人氣的
 1. 리마는 오늘날 날씨에
 對한 이야기였다 勿論
 얘기는 평범한 얘기다
 날이 개였으나 햇빛이
 내일조일도리밖에 없기 때
 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다 여러사
 람들은 오늘 소풍을 떠
 나오기前에 二九日밤에
 이미 氣象台 발표를 有意
 해서 드렸든 觀樣이다

勿論 나도 그部類에屬
 한 사람이지만 : 무었
 이라고했느냐하면 「아침
 에는개이겼으나 午後에
 는 한때비가오겠습니다」
 라고 해된것이다 事實
 午後때가 거의되자山이라
 서그런지는알수없어도바
 람이제법시원하도록불어
 왔으며 하늘은 구름장
 이 맑은것이아니나 한꺼
 두꺼서이기始作했다
 그런데 지금의 狀態로

보아서는 아직 비가
 올것것이않으므로 조
 금왔으면 비가올것이
 라는등 양은다는등
 여기는 부분하였다 어
 느새 十餘分이 지나갔을
 무렵 우리一行을 總指
 導하시는 副校長先主任
 께서 高안 出發하자고
 하는말씀에 一行은 선
 듯 선듯 일어서면서
 多少準備하기고온집을
 연구리에키어돌기始作하

였다 山中은 高요하다
 소나무사이로 차치두마
 리가 날아든다 산새는
 여기저기서 우리를 환
 영하는듯 반가히노래부
 르며 옆으로는 제법수
 정갈은 광은 시냇물이
 졸졸거리며 迎秋頌한다
 다만 선심한것은 아직
 時期尙우이어서인지丹楓
 구경을못한것뿐이다 空
 氣야 서늘距離에 孤獨
 한紅塵에비할까보나?

第一 먼저 뱃함을 찌지
 못한이는 바로 우리와
 每日의生活을 營爲하시는
 張先生任이시다 그럴理
 由도 張先生任은 어저
 께 氣를마시고 頭痛
 症으로 呻吟하시던터이
 다 오늘 先難의 苦함을
 했던것인지도모른다 파
 연 空氣는 말아서 가
 습속을 깨끗이 씻어주
 는듯 시원하다 거의
 山頂에오르니 그 무던
 히 쓸아지든 팔도 이
 제는 다식어버리고 오
 히려선선할지경이다 그
 때다 맨앞에 가는사람
 이 7다왔다 / 거기僧伽
 寺가 보인다 / 라고
 왜했다 山을림은 먼뒤
 에 뒤쳐져오는 이게도
 들렸을만하다 그러나
 갑작이 또 우리 一行
 은커를 疑心하지않을수
 없게되었다 그것은 이
 상한 7사이렌 7소리
 들려오는것이 아
 닌가? 暫時校
 時計를보고 그것이 光
 化門비거리 한모퉁이에
 우뚝솟아있는 消防署의
 그 高層塔에서 午正
 을 알리는 7사이렌 7
 소리인줄알고 모두安堵
 感을 느끼면서 그세서
 야 僧伽寺가 멀구두가잡
 다고生覺하였다 一行이
 完全히 僧伽寺庭園에들
 어스자그寺刹에초지인듯

한 韓 文僧에게 親切한
 案内를 바왔다 또 과연
 所聞대로 文僧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庭園에
 는 ㆍ 백일홍 ㆍ 국화 ㆍ
 等 여러가지 이름모를
 꽃으로 그윽한 花壇이
 섬들밀이로 안정해있으
 며 그위에는 額色을
 자랑하듯 極樂寶殿과
 冥火殿이 나란히 자리
 잡고있다 그리고 그뒤
 로는 當堂이라고도 그큰
 바위에 적혀늘린만한
 바위틈바구니에 山仲門
 속에는 新羅 때 기록되
 었다는 石佛이 있되
 여 그當時 우리先祖의
 手品을 瀝々히 일러준
 다 또한 그옆으로 약
 높이가 五(六)미터나 되
 는 큰 石壁에다 剛刺
 해놓은 釋迦牟尼佛(國
 寶二四三號)은 그야말
 로 那當時 先祖들의
 信仰生活에 一片을 말
 하여주는듯하다 더욱이
 一千三百年前에 新羅人
 이 飲水했다는 「약물」
 을 한모금씩 마셔보는
 瞬間은 그대도 千餘年
 前新羅人으로 도라가는
 듯하였다 또한 이와같
 은 右跡을 探勝함에 있어
 이를 記錄으로 남길수
 있도록 우리一行中에
 「카메라」가 準備되어
 있었다는 것은 퍼구나
 못후으로 生覺할수가

~80~
設問

- 一、速記學校 七月月 感想
- 二、速記士가 된다면
- 三、歸家後 練習程度와 方法
- 四、入校后 生活變動
- 五、當身の 酒量과 담배

金容煥



解答

一、① 速記士 되기가 意外에도 힘이든



다는것

② 學生들의 熱誠이 놀랄만하다는것

二 먼저 成績이 앞는다

많은 讀書과 間斷없는 研磨가

있어야 되겠는데 나의 怠性을 克

服할수가 있을는지.....

三 職場에서 나리들의 눈치를 살피

면서 하루 一時間乃至 二時間程度

를하고아직도 노트의 覆重하고

있다

四 ① 速記라는 上典이 나를 언제

나 拘束하고 있는것 같은氣

속에서 지낸다

② 閑談이 주렸다

③ 닥쳐오는 忙以外에는 일을

만들어 보라는 마음의 余裕가
없어진 다

五 一定量을 飲酒하나 못하나 하는

데 있어서는 飲酒時間이 問題가 되니
酒量의 基準을 어디다 두는지 잘 모르

겠으나 普通 一升의 藥酒라면 二人이

마실수있고 담배 一匣이면 足하다

陸 鐘 采

一 不振으로 因한 焦燥感밖에 없외다

二 速記士가 될것같지도 않습니다만 万

若에 된다면 速記를 해보겠오

三 練習하는 사람이 摘切한 答을 할것

이요

四 如前 (無變動)

五 酒量은 一席에서 藥酒 正宗은

拾合 洋酒나 燒酒같은면 四合

백알 두도 구리 程度고 白羊 一

匣이면 足하지요

金 明 壽

一 理論과 實除가 判異하다는것

二 君의 感想이 사라지지않아 計劃

도 세울수없음

三 논·표·틀사이없음 無條件 練習

四 神經質이 激増되어감

五 本來 去來 없음으로 無感覺 실

지는 않지요

文 炳 錫

- 一 感想이라고는 별로 없읍니다 熱心히 하여 能力者가 되리라 했으나 그게 마음대로 잘 되어야지요
- 二 勿論入學目的이 여기에 왔지만 의문입니다 된다면 韓國의 第一가는 遠記士가 되어야지요
- 三 方法은 勿論 練習은 全然 못하고 있음
- 四 別無 그저 하는것 없이 바블뿐입니다
- 五 兩者全無합니다 술은 二般 程度지요

(골, 술)

- 一 멋도 모르고 遠記 遠記하다가 七個月이 지났다고나 할까

- 二 글세요 方着되다면? 좀더 深 實히 生實해야겠는지요
- 三 間或 遠記錄얼어다가 二時間程度 놀러오는 親旧마다 불드러 알히고
- 四 子네 未安하지만 좀읽어줘
- 五 바람난 사람 같아 봐다고 말할터다
- 五 만하면서 먹으면 正宗 二升쯤 담배야 一타 열다섯개퍼 程度

設問答

林文基

- 一 허무하기 짝이 없으며 安만설어도 끌리는 事막이야
- 二 미리 斷定키 困난!
- 三 워낙 거리가 멀어 연습할 여가 없었음
- 四 무이전조
- 五 파히 실치는 얕은편

新語 新知識

휴머니즘 (英 Humanism)

휴머니란 것은 人間的

이라는 것인데

人間을 本佐로 하고 人

間을 第一이라고 하는 文

學 教育 思想上的 큰

潮流。

而歐에서 中世時代의

神中心의 思考에 反旗를

들고 나타났으나 오늘날

에는 人間에 自然的인

感情을 제일로 尊重하는

思考方式 (人間主義) 으로

되어왔다

人文主義 (특히 教育上)

人道主義 등은 다 같은 뜻

을 나타 내는 말이다

C 라임 (Celine) ...

라디오의 十一時 以後에

放送時間을 말한다 이時間

은 文藝 聽取者가 많은 것이

때문에 聽取率이 적으나 소

然 없는 것은 아니다 이時間

을利用해서 民間放送이盛行

한다. 킹 사이즈 (King size)

(size) 普通 담배 길이가 70

미리나 그보다 좀 더 긴

八十五미리나 되는 담배가

있다 이것을 "킹 사이즈"

의 담배라 한다 "체스리"

판키" 가 그것이다 길이가

길어서 "니프징"을 除去

하는 利益이 있고 길어도

값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

아들한다 요 지음은 "쵸코

펠" 같은 것은 普通 것보다

一週 긴 것을 "킹 사이즈"

라 한다. 마스 커뮤니케이

션(社 會 交 通 傳 達 意 義)

tion) 大衆傳達이라

뜻인바 新聞 通信 래디

오 텔레비죤 映畫 等の

各分野를 總括하는 社會

科學의 一部分인바, 마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의

로부터 사람으로 意思나

意見을 傳하는, 커뮤니케

이션의 回路를지나는

媒介物이 大衆들에 廣範圍

하게 配布되는 境遇를말

한다. "본로-主義" 이것은

美國의 孤丘外交政策을말

하는것이아니다 映畫女界

優' 마리린본로'의 人生哲

學 또는 生活信條라는것이

다 이말은 映畫"神士는

金髮을 좋아한다" 以來 最

은 사람 사이에 流行되던말

이다 이 映畫의 즐거워

는 "男子의 才能은 돈이

있는것이요 女子의 魅力

은 美人이어야한다 그러면

女子는 나이가 많아지면

무엇이 남나?

그러니 젊었을 때 戀愛나머

니 하지말고 약차같이

男子를 誘키해서 돈이나 보

석을 모을것" 이런얘기다

넌센스의 映畫이나 實은

現代의 아프레女性的인 한

代表的인 思考법은 틀림

없다 또한 이 女界優는

孤兒로서 十六歲 때 結

婚하였으나 곧 離婚하는

혹 스타-로서 이름 나

기 前에는 險한일을 겪

있었다.

四個의 自由 (英) Ste-

Four freedoms)

美大統領 루즈벨트가

一九四一年 第四七議會에

보낸 年頭敎書에 強調한

思想 即 一 言論과 表

明의 自由 = 信仰의 自

由 = 竊盜으로 부터의

自由 四 恐怖에서의 自

由의 비가지를 말한다

이 思想은 나중에 國

聯의 思想으로 發展되었

다. 一과 二는 무엇무엇

으로 부터의 自由이고

三과 四는 무엇 一에의

自由이다 結局 自由라는

말은 積極的으로 무엇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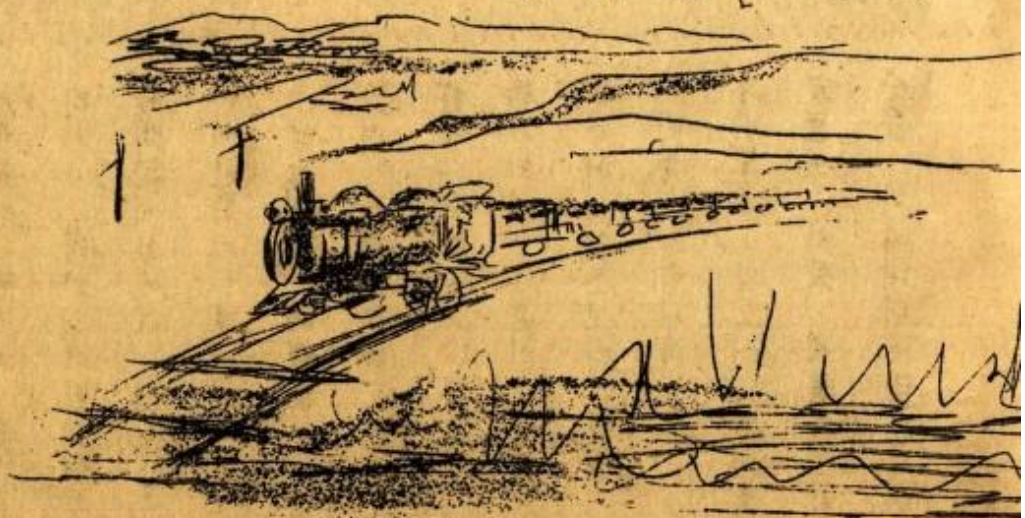
對한 自由와 어떻한 束

博으로 부터의 自由의

두가지 意味를 갖이고

있다

編輯室



編輯後記

이제 編輯은 끝났다

그러나 編輯後의 느낌

이 흔히 自慰의 形式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

마도 編輯中에 隘路를

回想할수있는 安定된 마

음과 編輯의 結果에 처

한 야릇한 期待때문이라

하기야 시부린대로 열매

가 맺어질것 이지판

그런데 「文藝晚成」 이

란 말이 있다

정영 그럴진면 惶急하게

서들은 이번 逸波學校九

목가 그리잘 되었으리라

곧 믿어지지 않는다 단

만 적은 人員數와 적은

原稿를 갖고 사를때

滿足の 微笑가 깃들수있

겠는가?

특히 이번 逸波學報가 單行

本으로 飛躍的인 發展을

보게 된것은 여러 學友

는 勿論 學校當局의 誠

心誠意한 努力의 結果이

리라 特히 이번 師宅

訪問記에 있어서 不足한點

어썬한곳이 많이있어도

그냥 그대로 編輯을 하였

으며 또한 先輩님들의

作品 後輩에게 좋은 資

料가 되어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앞으로의 後後

터한층 바랍니다

冬將軍을 맞으며 逸記學

友들도 자못 緊張된 氣

분을 자아내니 丙申年의

生の 若溲도 마즈막이라
 且달은 人生살리지만 活
 氣된 열골로 시해를 맛
 을때 遠記도 잘되리라
 끝으로 時日이 늦어진것
 을 謝道하며 育修의 美
 를 거들것을 再三 仰望
 합니다

X X X

~87~
 아오든 遼波學報가 一時

中斷되었다가 이제 野心
 本 第九号를 發刊하게됨
 에 즈하여 物心兩面으로
 烈熱한 後接을 아끼지않
 은 學校當局에 衷心으로
 感謝하는 同時에 여러분
 會員의 끊임없는 誠心 努
 려와 愛護를 계을리얌은
 此 對하여 編輯部로서
 百倍謝意를 表하는바이다
 단지 本호가 創刊호로부
 터 始作한지 第九号째에
 가서 一時中斷되어 續刊

되지못하였다함은 여기에
 일일히 區區私情하지않아
 도 이미 周知하는 事實
 이거니와 記憶을 다시한
 번 惹起시키는意味에서
 一言하고저하는바이다
 即 第八호가 發刊된다음
 에 바로夏期放學이 始作
 됨으로해서 中斷되었었고
 그後關學校에도 第九号를
 내지못한 理由는 前智育
 部長의 長期缺席과 無消息
 으로因하여 智育部를担当

하는 責任者가 뚜렷하지 못하여 一時 編輯部內의

秩序가 잡히지 못하여 只今

까지 고려왔었다는 것을

自家反省함으로서 紙面을

通하여 여러분會員에게

분명한 謝過를 드리는바

이다

그러나 不幸中多幸히도

昨日一日 總會가 召集됨

과 아울러 여러분께서

智育部長을 새로選出해

주신것은 本編輯部로서

再出發에 다시없는 힘이

되었다는것을 또한 紙面

을通해서 感謝드리는바이

며 이번에 單行本의 出

刊은 新任智育部長의 野

心的 慾望과 希望에서

세워진 勇斷에 依한것임

을 밝혀둔다

그리고 本第九号에는

여러분會員의 誠實와 努

力の 結晶으로나라이는 또

稿이기에 全部살리기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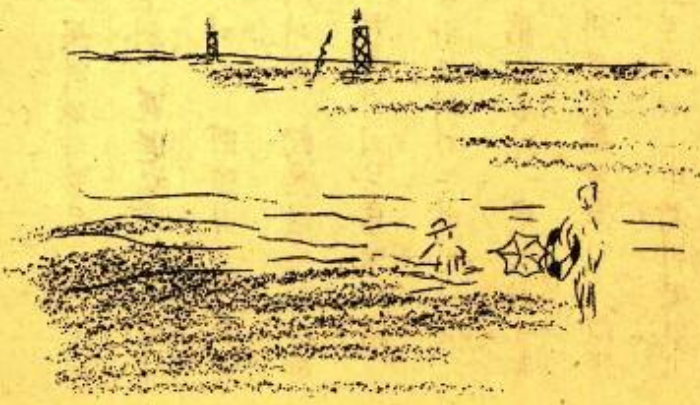
음을 付託해두는바이다

끝으로 智育部로서는 次

号發刊에 構想中인바 앞

으로 繼續되는 投稿을

付託하는 바이다



金言

○ 利己的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받는다 (作者 未詳)
○ 現任을 利用하라 (호레에스) 할원없는 사람에게는 여가가 없다

○ 게으름뱅이가 잠자는 사이에 쇠이 잘어라 (프랑크린)

○ 지나친 休息은 苦痛이 된다 (호오머어)

○ 成大功者 不小荷 (說苑)

○ 來日 할일이 있거든 그것을 오늘하라 (프랑크린)

○ 忍耐와 끈기와는 最大의 功績을 이겨낸다 (크라릿사)

○ 學門에는 평탄한 길이었다 (영俗談)

○ 娯趣味한 流行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피체)

○ 人間이며 너는 微笑와 苦痛사이를 往復하는 時計의 추이다 (바이롱)

○ 急히 서둘름은 헛수품의 根本 (프렝크린)

